휴대전화 출고가 내려갈까

metro
메트로 2014년 5월 7일 수요일 www.metroseoul.co.kr

전문취업사이트 알면 도움

엑소 앨범 공개…멈춰진 음악시장 대세 컴백

NEWS p/[illegible]

기성용 귀국 무릎치료 '브라질 모드' 돌입

NEWS p/22

"극락왕생 하시길" 세월호 침몰사고 21일째이자 석가탄신일인 6일 오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illegible] 스님들이 [illegible] 실종자 귀환, 일반 시민들과 함께 실종자를 위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창업시장 '금융 수혈' 힘 받는다

규제 풀고 자산·매출 없어도 대출 심사키로
걸림돌인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도 구체화

#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김창민(15 가명) 군은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창업을 준비 중이다. 최근 응모한 게임 아이디어가 대상을 받은 후 게임업계에서 직접 게임을 만들어 볼 것을 권유받았기 때문이다. 필요한 기술은 게임업계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가장 큰 걸림돌인 창업자금도 금융기관들이 대출이나 보증 등의 지원을 해주는 대상을 만 15세까지 낮추면서 해결됐다. 단순히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목표였던 김 군은 이젠 넥슨·엔씨소프트와 같은 세계적인 게임업계의 CEO를 꿈꾸고 있다.

김 군과 같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층이 크게 늘어날 조짐이다.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 금융당국 등도 앞 다퉈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는 덕분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최근 창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금융 지원에 나섰다. 특히 청년 창업 지원 대상을 경제적으로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구의 하한 연령인 만 15세까지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창업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산과 매출이 없어도 대출 심사를 해주고 연대 보증이 없는 신용대출 상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창업자 연대보증면제 확대

창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창업자 연대보증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기관만 해오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가 상반기 중 전체 시중은행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미 신한은행에서는 지난 3월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기술선도 창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선도 창업기업에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도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예비창업자 창업보증' 제도를 시행중이다. 창업 전에 예비창업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을 평가해 1억원 내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창업 교육도 봇물

특정 시역과 지원 대상 분야를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과 금융지원도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서울지역 소상공인 창업 예정자와 사회적기업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5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약 500억원의 신규 대출한도를 조성키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경기테크노파크와 함께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 창업 및 사업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금융권이 마련한 지원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 청년창업가들이 창업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세월호 같은 비극 다신 없게"

박 대통령 조계사 법요식 참석 · "국가정책·시스템 정비"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대통령으로서 어린 학생들과 가족을 갑자기 잃은 유가족들에 무엇이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날인 6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물욕에 눈이 어두워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런 불의를 묵인해준 무책임한 행동들이 결국은 살생의 업으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이어 "특별히 올해 봉축법요식을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세월호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받고 계신 유가족들께 부처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것은 박 대통령이 처음이다. 법요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 행사가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고 사고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국민과 함께 나누시는 취지로 마련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저는 이번 희생이 헛되지 않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국가정책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오랜 세월동안 묵인하고 쌓여왔던 잘못된 관행과 민관유착, 공직사회의 문제 등을 바로잡고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아서 바르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고자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계속되는 조문 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 내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하고 있다. 전날까지 전국 각 분향소의 조문객 수는 130만명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취소가 유일한 애도는 아니다

기자 수첩
김지만 <연예스포츠부 기자>

세월호 참사로 나라가 슬픔에 빠진 가운데 대중문화계는 말 그대로 올스톱 됐다. 예능 프로그램은 녹화를 취소하며 애도를 표했고 팬들과 몇 달 길게는 일 년 가까이 준비한 음악 공연들은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온 국민이 애도에 동참하고 희희낙락을 자제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무대에 오르는 기회가 흔치 않은 뮤지션들에게 공연 취소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뷰티풀 민트 라이프'(이하 뷰민라)가 취소 릴레이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잡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린플러그드', '월드디제이 페스티벌'은 일정이 연기됐다. '안산밸리 록페스티벌'이 취소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정을 강행키로 한 뷰민라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따가웠다. 뷰민라 측은 "애도 분위기에 맞춰 노래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5일 주최 측 고양시문화재단은 일방적으로 공연 취소를 통보했다.

다소 강압적인 형태로 이뤄진 뷰민라 취소는 대중음악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여전히 편견에 싸여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일이었다. 음악은 흥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인생사의 희노애락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예술이지만 '음악=딴따라'라는 등식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단단히 각인돼 있는 듯하다.

공연 취소 결정이 아쉽지만 취소만이 애도를 표현하는 유일한 방식이 돼선 안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 /손진영

여야 8일 원내대표 선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나란히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0시에, 새정치연합은 오후 2시에 각각 원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여야의 새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후반기의 첫 배를 이끌 원내 사령탑이자 양측의 협상 창구로서 막중한 소임을 맡아야 한다. 동시에 임기 시작과 함께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같은 정치적 파고를 헤쳐가야 한다.

새누리당은 충남지사를 지낸 3선 이완구 의원의 단독출마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 의원의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는 3선의 주호영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경선은 노영민·최재성·박영선·이종걸 의원의 4파전이다. 이번 경선은 통합 이후 새정치연합 내 역학 구도의 중대 분수령으로 전망된다. /김현정기자

공직자윤리법 구멍 '관피아' 양산

협회 79곳에 퇴직관료 141명이나 취업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퇴직관료의 협회 취업 관행이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도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안전행정부의 자료를 보면 2011~2013년에 주요 협회 79곳에 퇴직관료 141명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도 않고 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 퇴직 후 직무 관련성으로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은 3960곳이며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 역시 취업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취업을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정부로부터 임원 임명·승인이 이뤄지는 협회는 예외가 적용돼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난 3년간 퇴직관료 141명이 이 예외 규정에 따라 업계 단체 79곳에 취업을 한 것이다. 협회에 재취업한 퇴직관료 수는 국토부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13명), 금융위원회(12명), 농림축산식품부(12명), 산업통상자원부(11명) 등도 10명 넘게 산하 단체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자료는 취업제한대상 기업이 가입한 협회만을 파악한 것으로, 중소업체로 구성된 협회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퇴직관료 재취업자, 속칭 '관료마피아'(관피아)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김민준기자

야 "진상규명 특검·청문회 열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특별검사 도입을 포함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국정감사 실시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또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의 재발을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위원회인 가칭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국회가 주도하는 범국가적 위원회의 결론을 수렴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조직개편 역시 국회가 입법을 통해 결론 낼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가족이 원한다면 특검을 포함한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도 "정부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난 이상 지금은 국회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당장 5월 국회의 모든 관련 상임위가 즉각 가동돼 이번 참사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준기자

내년 대외 무상원조 1조2506억원

● 외교부는 내년에 추진할 우리나라의 대외 무상원조 예산으로 1조2506억원을 잠정 배정했다.

이 중 29개 국내 기관의 양자 무상원조 예산은 9586억원이고, 유엔과 그 외 국제기구를 통한 20개 기관의 다자원조 예산은 2919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아시아(27.2%), 아프리카(13.9%), 중동·독립국가연합(7.9%) 순이다.

국가중요시설 경비원 소총 휴대 추진

● 국방부가 국가 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인력들이 개인화기(소총)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현재 원자력발전소 등 일부 중요시설 경비 인력들만 개인화기를 휴대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른자쇼핑 강남땅 '수상한 거래'

세모그룹 부도 처리 후 무상 증여 … 수백억 가치

탤런트 전양자(여)가 공동대표로 있는 (주)노른자쇼핑이 서울 강남 '노른자위'에 소유하고 있는 땅을 둘러싸고 수상한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6일 (주)세모의 감사보고서와 관련 등기부등본을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주)노른자쇼핑 상가가 들어선 대지의 지분 다수가 유병언(73) 전 회장이 경영한 세모그룹의 모체인 (주)세모의 소유로 확인됐다.

현재 이 대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주)세모와 (주)노른자쇼핑을 비롯해 여러 명의 개인이다. 유 전 회장이 이 대지와 관련해 등장한 때는 1983년 대지 지분의 약 53%를 직접 사들이면서다. 당시 나머지 지분은 여러 명의 개인이 적게는 1%씩 쪼개서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 전 회장은 오대양 사건 이 발생한 다음 해인 1988년 대지 지분 전량을 한 개인에게 팔았다.

수상한 점은 세모그룹이 최종 부도 처리된 이후인 1998년 4월 소유자가 바뀌는 과정이다. 이때 이 개인은 자신의 지분 전량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주)세모에 무상으로 증여했다. 당시 (주)세모는 부도 이후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이 대지면적이 1345㎡(약 408평)로 현지 시세가 400억원을 호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시세 기준으로 약 200억원 어치의 토지 지분을 일방적으로 내어준 셈이다.

한 회계사는 "개인이 수백억짜리 부동산을 특정 기업에 단 한 푼의 대가도 받지 않고 내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연준기자

노란 종이배가 만든 하트 6일 오후 서울 태평로 서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시민들이 추모 소망 메시지를 적은 노란 종이배를 놓아 하트 모양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유병언 측근' 변기춘·고창환 소환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6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 중 하나인 (주)천해지의 대표이사 변기춘(42)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유 전 회장 차남 혁기(42)씨의 친구로 알려진 변 대표는 현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계열사 최대주주인 천해지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유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창환(67) 세모 대표이사도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검찰은 또 혁기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미국 FBI와 공조해 소재 파악과 함께 강제 소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근으로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사들이고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다혜기자 y...

해양대생 위험 노출
실습선 67% 노후판명

최대 200명이 넘는 학생이 타는 수 해양계 대학 실습선 대부분의 선령이 20년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6일 공개한 국립대학 실습선 보유현황을 보면 국내 수·해양계 국립대학의 실습선 가운데 66.7%가 선령 20년이 넘은 노후선박으로 조사됐다.

국내 대학 실습선은 평균 2723t으로 평균 18.6년의 선령이다. 2000년대 건조한 실습선 3척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선박은 모두 1993년에 건조돼 현재 22년의 선령을 가진 낡은 선박이다.

주 의원은 "노후선박으로 한 달 이상씩 외국으로 원양실습을 한다는 것은 학생 안전을 매우 위협하는 것이다"며 "국내 연안뿐 아니라 해외까지 운항하는 선박이라면 더욱 안전한 배에 학생들을 태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다혜기자

민간잠수사 1명 끝내 사망

산업재 활약 베테랑 … 잠수병 아닌 몸·장비 이상 가능성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수중 수색을 하던 민간잠수사 1명이 끝내 사망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세월호 참사 발생 21일째인 6일 새벽 한때 중단됐던 실종자 수색작업을 날이 밝으면서 재개했다. 구조팀은 이날 오전 6시 5분께 유속이 느려지는 정조 시간에 맞춰 잠수를 시도했다.

그러나 수중 수색을 재개한 직후 민간잠수사 이광욱(53)씨가 작업 중 의식을 잃어 헬기로 목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7시 36분께 숨졌다. 세월호 실종자 구조 수색 작업에 투입된 잠수사로서 첫 희생자다.

이씨는 화력발전소와 댐 건설에도 참여했던 베테랑 산업잠수사로 기존 잠수사들의 피로도가 심해지자 최근 구조팀이 추가 모집한 잠수사 13명 중 1명이다. 5일 사고해역에 도착해 6일 새벽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심한 조류로 들어가지 못하다 오전 6시 5분께 처음으로 입수했다.

세월호 선미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는 작업에 나섰던 이씨는 잠수 5분여 만에 연락이 두절되자 구조팀은 즉각 다른 잠수사를 들여보냈다. 당시 이씨는 머리에 쓰는 산소공급 장비와 허리에 매는 납벨트를 벗은 상태로 이미 급상승 중이었다.

사고 상황을 감안하면 경험부족이 아닌 이씨의 몸이나 장비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 병원에서 실시한 이씨의 피검사 등에서는 칼륨 수치가 높은 것 외에 특이점은 없고 외관상 특이사항도 없는 것으로 나왔다. CT 촬영에서는 이씨의 머리에 공기가 차 있는 기뇌증이 확인됐다.

박인호 목포한국병원장은 "기뇌증은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 드물게는 다이빙과도 연관 있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압력 차이 때문인데 이것이 잠수가 원인인지는 아직 파악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잠수사들에게 종종 발생하는 잠수병이 이씨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닌 것 같다는 게 현장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편 구조팀은 전날 14명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하는 등 이날 오후 8시 현재 사망자는 267명이고 실종자는 35명이다. 구조팀은 총 111개 공간에서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64곳 가운데 61곳에 대한 수색을 완료했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침묵 행진 6일 오후 서울 정동예술극장 앞 거리에서 국화꽃과 손피켓을 든 시민과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서왕에 도전하세요

협성문화재단 선발대회 개최 · 8월초까지 독후감 공모

"사람들은 책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성숙해진다."

협성문화재단이 시민들의 독서문화증진과 청소년들의 독서력 배양을 위해 제 3회 협성 독서왕 선발대회를 갖는다고 6일 밝혔다.

협성문화재단은 이번 대회를 위해 5월부터 8월초까지 3개월간 독후감을 공모한다.

협성독서왕은 초·중·고생을 비롯한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총 시상금 7500만원을 준다.

대상 200만원을 비롯해 협성문학상, 내일의 작가상, 작가 꿈나무상 등 개인상 53명과 참여율이 높은 20개 학교 및 20개 도서관에 대해 총 3500여권의 도서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수정동 협성타워 13층 대연회장에서 시장, 교육감을 비롯한 주요 귀빈과 수상자의 가족, 학교 및 도서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한편 협성문화재단은 (주)협성종합건업 정철원 회장이 개인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2010년 설립 이후 현재 400억원의 기금을 운영해 꾸준한 사회봉사와 어려운 이웃 돕기, 교육진흥사업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협성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독서왕 선발 대회를 통해 초·중·고생 등 청소년들은 물론 대학생과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독서문화를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경남정보대 유지 취업률 82% '지역 1위'

경남정보대학교의 유지취업률이 82.1%로 부산지역 졸업자 1000명 이상 전문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지역 졸업자 1000명 이상 전문대학 가운데 경남정보대의 유지취업률은 82.1%를 기록,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여대 81.2%, 부산경상대 80.4%, 동부산대 80.1%, 동주대 77.4%, 동의과학대 76.5%, 부산과학기술대 74.0% 순으로 나타났다. 졸업자 수 678명의 대동대학은 89%의 유지취업률을 보였다.

이번 유지취업률은 지난해 6월 1일자 취업통계 발표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취업자 지표로 직장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산출됐다.

경남정보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적성과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식 취업교육을 통해 현장 적응력을 키워 취업시킨 결과로 보인다"며 "보다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고용·산재보험의 모든 것

Q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누가 언제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A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가 가입해야 합니다. 단, 농업·임업(산재보험은 벌목업 제외)·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이 가입 대상이고, 법령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면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대수선의 경우 200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제공

나오연 전 국회의원 영산대 석좌교수로

나오연(81·사진) 전 국회의원이 정치와 경제분야에서 경험한 노하우를 전하기 위해 영산대 경영학과 석좌교수로 대학강단에 선다.

나오연씨는 건국대 경제학박사를 취득하고 국세청과 재무국의 공직생활을 두루 거쳐 14~16대 양산지역 국회의원과 대한민국 헌정회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다.

나오연석좌교수는 "15년만에 대학 강단에 서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영산대에서 추구하는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하균기자

"지에서 중고품 팔아요" 이웃돕기 어린이 벼룩시장 어린이날인 5일 오전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신세계 야외주차장에서 열린 어린이 벼룩시장 '벙어리 쫑쫑쫑' 행사에서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트렁크를 비우고, 사랑을 담아요' 라는 주제로 마련된 카부츠 세일은 어린이들이 재활용품을 팔아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경제공부도 하는 교육형 이벤트로 자리잡았다. /연합뉴스

여·야 무소속 부산시장 후보들 황금연휴 표심 잡기 행보

서병수 "가족형 밤문화 추진"
김영춘 "교육 투자 늘리겠다"
오거돈 "아이 안전한 도시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황금연휴를 맞아 여·야·무소속 부산시장 후보들이 표심잡기에 나섰다.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 5일 최근 개장한 동물원 '더파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산시민의 행복은 가정의 안정과 여유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가족형 밤문화 프로그램 발굴, 여성 행복 시스템 구축 등 가정 행복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서 후보는 이날 더파크의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3인가구, 4인가구, 심대가족 등 가족 단위로 할인된 가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족요금제' 도입을 적극 협의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폭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이어 부산에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밤문화'가 거의 없다는 점에 착안, 문화회관·박물관 등 공공문화 시설을 야간에 개방하는 등 '밤에도 즐기는 부산 문화' 프로젝트도 추진키로 했다.

서 후보는 "가정의 행복은 여성의 여유와 안정에서 시작된다"면서 "여성을 위한 통합적인 컨트롤타워를 세워 체계적으로 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함께 "시민들이 여유와 문화를 향유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여성과 가족이라는 테마의 가정행복 프로그램을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5일 부산대학교 병원 5층 어린이 병동을 방문해 아이들의 쾌유와 부모님들을 위로했다.

부산시장 후보자들이 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개장식에 참석해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병수, 김영춘, 오거돈 후보. /연합뉴스

김 후보는 보호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어린이날을 맞아 밝게 뛰어놀고 즐겁게 보내야 될 어린이들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어린이 병동을 방문했다"며 "도시의 미래는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육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우리 부산은 어린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동네가 되어야 한다"며 "부산시장이 되면 시청과 구청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초등·중등 과정에 혁신학교를 설립해 중학교 의무급식을 꼭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복지 정책과 관련 "특히 부산은 전국에서 신생아 출생률이 낮은 도시로 부산시가 앞장서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도와줘야 된다"며 "어린이의 진단검사비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시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보육정책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무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카부츠 벼룩시장, 더파크, 부산시민공원 등을 방문해 '아이 낳아 기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민생 대장정을 실시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신세계센텀시티 백화점 야외주차장에서 개최된 카부츠 벼룩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린이가 살기에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린이의 환한 웃음은 행복한 세상의 바로미터"라며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부산, 사랑·긍정·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희망찬 부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더파크를 찾아 파크라운지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추모록지를 남기고 묵념한 후 시민들을 만났다.

더파크에서 만난 시민들은 공통적으로 오 후보에게 "가족이 값싸게 즐길 오락거리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오 후보는 "동물원에 왔으면 웃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시민들 표정이 다 굳어있고 짜증이 나 있다"며 "부산에 가족단위로 나들이 나갈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공감했다.

또한 오 후보는 부산시민대공원을 찾아 "부산이 어린이가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하균기자 jhk@metroseoul.co.kr

킬힐 즐기다 발가락 찌릿하다면…

족부 질환 원인과 치료법

지간신경종 의심해봐야 "절골술로 부작용 최소화"

"통증은 곧 질병의 신호"

현대인의 발은 쉼없이 혹사 당하고 있다.

발은 신체의 모든 뼈 중 5분의 1이 몰려 있고 평생토록 지구의 4바퀴 반에 해당하는 거리를 움직인다.

최근 발바닥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발바닥에 껌이 붙은 것처럼 먹먹하거나 발을 잘못 딛는 경우 발가락에 찌릿한 느낌이 든다면 지간신경종(몰톤씨신경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부산에서 지간신경종 무지외반증 등 족부관련질환을 전담해 케어하는 병원이 있다.

부산진구당감동에 위치한 대한민국 정형외과가 바로 그 곳.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사진)원장을 만나 족부관련질환에 대한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들어봤다.

이준호 원장은 "'예쁜 발=작은 발' 이라는 통념이 아직도 남아있다. 특히 여성들은 발이 작고 날렵해 보이는 신발을 선호한다"면서 "이런 신발을 애용하는 여성들은 발의 앞부분인 중족골과 발가락 신경에 생기는 지간신경종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간신경종은 발가락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과도한 압력을 받거나 발가락 사이에서 눌려 붓는 질환을 말한다.

이 원장은 "이 질환은 굽이 높은 구두를 신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며 "발가락 신경과 주변 조직에 과도한 자극이 가해져서 몸무게 전체의 압박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발은 26개의 뼈와 33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오묘하게 움직인다"며 "어느 한 곳만 이상이 생겨도 보행에 필요한 균형을 잃고 현쇄적인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고 밝혔다.

지간 신경종은 매우 다양한 감각 이상을 호소한다.

보통 가만히 있을 때는 거의 증상이 없다가 딱딱한 바닥에 닿으면 발바닥 앞쪽이 화끈거린다.

이 원장은 "상담수가 딱면히 발이 저리다고 하는데 이는 디스크나 하지정맥류 혈관 장애 등으로 오인받아 MRI나 혈관검사 등을 해보지만 오랜 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우리 병원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후된 지간신경종 자체를 절제하지 않고 중족골 사이에 끼어서 붓게 된 지간신경의 압박을 감소하는 절골술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간신경종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법을 시행해 부작용을 줄여 재발 걱정을 덜어 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간혹 시술 후 부종이나 동통 부정유합 등이 발생할 수 있어"주의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발가락은 한 번 변형되면 다른 발가락을 변형시키고 무릎 허리 관절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변형과 통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하균기자 hkjlm@metroseoul.co.kr

"영화의 전설…" 특별전 중구의 9층 나이스중구 갤러리에서 중구지역에서 활영된 영화 포스터를 전시하는 '영화의 전설 부산 중구' 특별전을 감상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이번 특별전은 오는 30일까지 열린다.

복개하천 환경오염 심각

부산 도심에 있는 복개하천들이 연결된 오수관 등 하수시설 파손에 따른 오염에 노출돼 있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동천, 호계천, 춘천, 우동천, 남천, 보수천 등 1종 복개하천 6곳을 대상으로 담당구청, 부산환경공단과 함께 실태조사를 했더니 하수시설 불량을 비롯해 퇴적 오니 부패 등 환경 측면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춘천의 경우 오수관 연결부분 3곳이 파손된 채 방치돼 하천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동천에서는 생활하수 유도수로 1곳이 부서져 있었고, 일부 배수차집관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수천과 춘천에는 하천 끝 부분에 빗물과 오수를 구분하는 차집웨어가 아예 없었고, 초량천의 차집웨어 바다 슬라브는 파손된 채 방치돼 있었다.

일부 하천 바닥과 격벽에서는 쌓인 오니(찌꺼기)들이 부패한데다 그 양도 많아 준설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하천에서는 폐수로 보이는 색이 다른 물이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돼 현재 수질을 정밀분석 중이다.

부산시는 1종 복개하천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2종 복개하천 10곳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롯데호텔부산 객실 새단장

롯데호텔부산은 4개 층 128개 객실의 새단장 공사를 모두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개관 17주년을 맞은 호텔은 2012년 로비층 4개 식음업장을 전면 새단장 한데 이어 객실도 새롭게 꾸몄다.

호텔은 지난 1일부터 호텔 휘트니스센터 리뉴얼 공사에 착수했다.

휘트니스 센터 내 체련장, 스파 실내외 수영장, 골프장 등은 1년 간의 공사를 거친 뒤 내년 3월 중 다시 개장 할 예정이다.

호텔은 공사 기간 동안 폐쇄되는 휘트니스 센터를 대신해 오는 12일부터 38층 라운지 내 투숙객 전용 임시체련장을 운영한다. /정하균기자

사민공원 야간에도 '인기' 5일 늦은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에서 시민들이 LED경관조명을 받으며 펼쳐지는 하늘빛 폭포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시원블루' 월 판매량 100만병 돌파

대선주조의 18도 소주 '시원블루'가 폭풍질주를 하고 있다.

6일 주류업계와 대선주조 등에 따르면 시원블루는 지난달에 140만 3000병이 판매돼 출시 4개월 만에 월 판매량 100만 병을 돌파했다.

시원블루는 출시 첫 달인 1월 판매량 34만 2109병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개월만에 판매량이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실제로 부산의 전체 소주시장 판매량 감소에 따라 대선주조의 전체 판매량도 1월 713만 병에서 4월 673만 병으로 감소한 반면 시원블루만 유일하게 300%에 가까운 폭풍성장을 달성한 것.

이에 따라 시원과 시원블루 이 등 3가지 소주를 생산하는 대선주조 내에서 시원블루의 비중은 5%에서 21%로 급격히 늘어났다.

시원블루가 이를 제치고 대선주조의 주력 소주로 급부상한 것이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시원블루가 술맛이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부산의 소주시장에서 조기에 안착한 후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며 "최근 전체 소주시장의 침체된 분위기에서 시원블루의 선전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대선주조는 시원블루를 주력제품화하기로 하고 판매 대상을 40대 전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다.

판매 목표도 당초 월 50만 병에서 250만 병으로 늘었다.

대선주조 관계자는 "18도 소주의 부드럽고 깔끔한 맛과 '시원'이 포함된 브랜드 이름, 힐링스톤의 원적외선 숙성공법과 천연암반수 100%로 만들어진 '고퀄리티' 제품이란 점이 인기 비결"이라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와인 유통기한 늘리려 항생제

metro Brazil

양조장 13곳 조사 예정

Governo inv fraude em v

브라질 농업부가 와인 제조 과정에 항생제가 투입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브라질 전체 와인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남부 지역에 집중된다.

남부 지역의 와이너리(양조장) 13곳을 조사할 예정인 농업부는 와인 제조 과정에서 곰팡이 증식을 막고 유통기한을 늘리는 약품이 사용됐는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약품은 유제품에는 사용이 허가돼 있지만 와인 제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의사들은 이런 약품이 첨가된 와인을 지속적으로 마실 경우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추후 질병 치료를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농업부는 항생제가 병입 과정에서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견되자 13개 사의 모든 상품을 시장에서 리콜했다. 그러나 아직 혐의가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된 와이너리를 밝히는 것에는 신중했다. 공정이 동참한 가운데 실시되는 조사 결과는 향후 사용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농업부는 현재 항생제 사용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 측에 구매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납치 여학생 200여명 팔겠다"

이슬람 무장세력 '보코하람' 주장… "서구식 교육은 죄악"

이슬람 무장세력 '보코하람'이 5일(현지시간) 납치한 여학생 200여명을 노예로 팔겠다고 말했다.

보코하람의 최고지도자인 아부바카르 세카우는 이날 AFP통신이 입수한 동영상에서 지난달 14일 나이지리아 치복시의 한 학교에서 납치된 여학생 276명을 언급하며 "내가 소녀들을 납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그들을 시장에 내다 팔 것"이라면서 자신이 여학생들을 노예로 붙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구식 교육은 죄악이고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여학생들은 결혼을 해야 한다. 나는 12세, 9세 소녀들을 시집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외신에 따르면 납치된 여학생 중 몇 명은 유괴범과 강제로 결혼하거나 국경 지대에서 약 12달러에 차드 등 인근 국가에 신부로 팔려갔다.

앞서 굿럭 조너선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TV에 출연, 피랍 여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종 여학생들을 위한 행진을 이끈 주민 대표는 조너선 대통령의 부인이 경찰에 시위 주동자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하는 등 정부가 오히려 시위대를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국가 건설을 주장하며 무차별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4년간 4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끔찍한 비극'으로 규정하며 여학생 구출 및 보코하람 진압 작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여학생들 다수가 인접국으로 이동된 징후를 확보했다"며 "사태 논의를 위해 국무부 담당자들 나이지리아로 파견했다"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seemi@metroseoul.co.kr

인도 열차탈선 최소 12명 사망 4일(현지시간) 인도 마하라시트라주의 열차 탈선 사고 현장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다. 이번 사고로 최소 1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 /신화 연합뉴스

우크라 또 피바람… 정부군 4명 사망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또다시 피바람이 불고 있다.

BBC 방송 등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슬라뱐스크에서 정부군과 분리주의 무장 시위대가 충돌,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이날 정부군 4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으며 헬기도 격추됐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800명의 무장 시위대가 박격포를 동원해 정부군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시위대 측에서도 희생자가 나왔다. 시위대는 슬라뱐스크에서 총격으로 3명이 숨졌고 동부 세메니프카 지역에서도 5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최소 8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남부 오데사에서 친러 세력과 분리주의 세력 간 충돌로 46명이 숨지자 진압 작전의 속도를 늦췄다. 그러나 이날 다시 진압 작전의 강도를 높이면서 슬라뱐스크 시내까지 진격, 대규모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우크라이나 유혈사태가 재점화하자 국제 사회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오데사에 추가 충돌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미기자

美 컬럼비아대 실종 한인 허드슨 강에서 시신 발견

미국 컬럼비아대학에 재학 중이던 한인 이모(29)씨가 실종 한 달여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뉴욕 경찰은 지난 3일 허드슨강에 떠오른 아시아계 여성이 이씨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스웨터를 입고 부츠를 신은 상태였으며 외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뉴욕 맨해튼의 자택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행방이 묘연해 졌다.

경찰은 그가 실종된 날 허드슨강에서 휴대전화기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점에 착안, 투신자살로 추정하고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올해도 '축의금 품앗이'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 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 늘어

서울 서초구에 거주 중인 김상종 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 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고 속정이 크죠."

정선희씨(58세·강남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싹싹한 며느리, 예쁜 손주 둔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부럽죠. 올해도 봉투만 보내다가 지나버리면 어쩌나 싶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 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주)의 김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결혼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 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박현우씨(65세·송파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 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성상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박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뒀다"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의 특별한 한정혜택!

10%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선보여…

공기업 연구원 정성호씨(31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보니 해가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만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이맘때면 하루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조급함만 앞서 아무 회사나 선택 하는 것은 금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결혼정보회사 가입 시 확인할 것〉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와 공신력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 관리
회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및 관리
회원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 매칭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관리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가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2012,2013(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및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브랜드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과학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차원적인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인정받기도 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행복한 결혼을 위한 기준은 다 다르니까, 등급은 필요 없죠"

결혼정보회사는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만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길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가연결혼정보(주) 조인상 커플매니저는 오직 인연을 찾아 드릴 뿐 등급은 없다고 말한다.

◇ 결혼정보회사에 '등급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나눌 거라는 선입관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가연에서는 등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급 개념 자체가 불필요해요.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배우자 상대를 찾아 드리지, 등급에 따라 매칭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 등급은 없더라도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요?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배우자에 대해 바라는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상담 시 다양한 이상형 조건들을 수집하죠. 어떤 분은 배우자가 공무원이길 바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같은 종교이길 바랄 수도 있는 것처럼 누구나 바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찾아드리기 위해 배우자 조건에 대한 상담은 필수 과정인 거죠.

가연결혼정보(주) 조인상 팀장

◇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평생 행복할 사람을 찾는 일인 만큼 의지를 갖고 노력해서야 하죠. 결혼정보회사의 성혼 프로그램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해온 바로는 적극적인 분들일수록 매칭 성공률도 높더라고요. 기회는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 무료상담전화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

market index <2일>

코스피	1954.44 (▼2.35)	코스닥	558.66 (▼0.63)
금리	2.84 (▼0.01)	환율	1029.50 (▼2.50)

뉴스&뉴스

오공 챙기세요 6일 서울 용산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솔루시칸 오공세공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 제공

오피스텔 전세가율 70% ↑

● 서울지역 오피스텔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하 전세가율)이 처음으로 70%를 넘겼다.

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70.1%로 통계 조사를 시작한 2010년 7월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2011년 4월 62.7%, 2012년 4월 64.9%, 지난해 4월 66.2%로 매년 올랐다. 올 들어서도 1월 69.1%, 2월 69.3%, 3월 69.8%로 꾸준히 상승했다. 경기지역 오피스텔 전세가율도 75.0%로 조사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박선옥기자

569만 가구, "집 살 여력 있다"

● 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집 살 여력 있는 가구의 추계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구는 지난해 568만7000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1814만1000가구)의 31.3%에 달했다.

이는 전년(521만8000가구)보다 9.0% 증가한 것이다. 그중 무주택 가구는 143만9000가구, 유주택 가구는 424만8000가구로 추정됐다.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구 구성을 보면, 비수도권 거주 비율이 65.5%(372만3000가구)로 수도권보다 높았다. 유주택자가 74.7%(424만9000가구)로 무주택자보다 많았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혼인가구는 84.7%에 달했고, 중산층 52%, 고소득층 44.3%였다. /박선옥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8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학
편집국장 조○호
부산지사장·직대 김명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650-2100
독자센터 02)721-9860

휴대전화 출고가 내려갈 듯

단말기 유통법 통과… 보조금 차별 조장땐 벌금 최대 3억

여야간 갈등으로 국회에 계류됐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1년여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일 이용자 간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금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법'은 제조사가 자사 단말기를 많이 팔기 위해 이동사나 대리점, 판매점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자사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기준보다 많이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조사가 이 금지조항을 위반하면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3%)과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동사 역시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도 관련 매출액의 3% 과징금과 3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월 1일부터 사실상 단말기 가격 정찰제가 이뤄진다. /손진영기자 son!@

이에 따라 그동안 이동사 간 지나친 불법보조금 경쟁이다 발품을 팔며 이곳저곳 대리점을 찾아다니면서 더 싼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는 모습도 사라질 전망이다.

단말기 유통법은 이외에 ▲보조금 차별금지 ▲보조금 공시 ▲이용자의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보장 ▲보조금과 연계한 고가 요금제 강제제한 ▲제조사 장려금 조사 대상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제조사와 이동통신 사업자는 장려금과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면서 사실상 단말기의 가격 정찰제가 이뤄진다. 결국 소비자는 어느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가도 누구나 비슷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요금 공시제로 '최신폰 공짜', '최신폰 80만원 지원' 등과 같이 실제와 다르거나 지원조건 없이 선전하는 허위과장 광고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더라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 이하의 보조금 지급은 가능하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투명한 가격 경쟁 아래 보조금 지급률을 높이거나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부추겨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단말기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안을 추진해온 미래부 역시 단말기 유통법으로 정부의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차츰 (단말기 유통법이)자리를 잡으면 제조사·이동사 간 투명한 보조금 장려금을 기반으로 단말기 출고가도 내려갈 것"이라며 "과도한 보조금으로 통신 시장이 혼탁한 상황에서 이제는 지나친 가격 경쟁보다 서비스 경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연휴 마지막날 한산한 대형마트 연휴 마지막날인 6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5만원이상 결제 무료알람

신한·삼성카드 연내 도입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카드사들이 이르면 이달 중에 5만원 이상 결제 시 문자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 결제 건당 이용액 5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최근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가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들 카드사는 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 차원에서 당분간 모든 고객에게 무료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건당 결제액 5만원 이상에 대해 무료 제공하는 후속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문자 알림 서비스란 고객이 카드를 결제하면 결제 내역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돼 부정 사용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등 나머지 카드사도 연내 이 제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2월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카드 회원의 월평균 승인 거래는 2억2000만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만원 미만 거래는 전체의 67.3%인 1억4000만건이고, 5만원 미만은 1억7000만건, 5만원 이상은 4000만건을 차지했다. /김혜란기자

카톡으로 주식 사고판다

HTS·MTS 넘어 증권시장 진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톡(이하 '카톡')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시대가 열렸다. 지난 2000년 인터넷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 등장한 이래 불과 십수년 만에 스마트기기용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넘어 SNS로까지 매매창구가 진화했다.

일명 '카톡증권'의 선발주자는 키움증권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카톡의 신규 기능으로 추가되는 '증권 플러스 포 카카오'와 주식거래연동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 계정을 통해 실시간 종목 시세와 공시 등의 각종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소셜 기능을 통해 카톡 친구들이 등록한 관심 종목도 공유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회원 수가 3500만명에 달하는 카톡이 향후 MTS를 대체하는 매매 플랫폼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둔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MTS가 온라인 주식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뛰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코스피시장의 온라인 거래대금에서 MTS의 비중은 약 25%로 나타났다. 4년새 8배 이상 크게 늘었다. 반면 HTS는 90%대에서 70%대로 내려왔다.

카톡증권의 주식거래 수수료는 기존 MTS와 동일하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SNS의 특성상 많은 증권사들이 카톡에 정보를 제공하면 기존 MTS 사용자들이 소셜기능을 누리기 위해 카톡증권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반려동물 카드 '블루오션'

금융권, 시장 성장세 타고 상품 봇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금융권에서도 관련 상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포화상태인 카드시장에서 반려동물 관련 상품이 또 하나의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출산·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도 가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관련 산업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해말 반려동물을 키우는 고객 수요를 반영한 '참! 좋은 내사랑 펫카드'를 출시했다. 펫카드는 반려동물과의 만남부터 동행, 이별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준다. 우선 자신의 반려동물 사진을 카드 앞면에 프린트해 단 하나뿐인 특별카드 제작이 가능하다. 또 제휴된 반려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5%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나SK카드는 한국애견협회와 제휴하고 '마이펫 생활의 달인 카드'를 내놨다. 훈련소, 동물병원, 미용, 스튜디오 등 반려견 관련 전국 300여개 가맹점에서 5~10% 할인 또는 2%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이 있다. 카드발급 고객은 한국애견협회 회원이 아니어도 자동으로 멤버십 준회원(무료)에 가입된다. 가입하면 애견 관련 ▲훈련 및 위탁 ▲동물병원 ▲미용학원 ▲스튜디오 및 번식 ▲장례 및 번률 상담 등 전국 300여 개 제휴가맹점에서 5~10% 현장 할인 또는 2% 포인트 적립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도 반려동물 관련 상품은 꾸준히 출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삼성화재의 '애니펫 애견의료보험'은 반려동물에게 질병이나 사고가 생겼을 경우 치료비를 지급해주는 보장성 상품이다. 롯데손해보험도 지난해 '롯데 마이 펫 보험'을 출시해 피부질환, 백내장 등 각종 동물 질환을 보장해준다. 메리츠화재는 한국동물병원협회와 함께 반려견 건강검진 프로그램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했다. 은행업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카드 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효성ITX 3배 뛰었다

사물인터넷주 급부상

코스피가 올해도 박스권 장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효성ITX의 주가는 지난해 말 5740원에서 지난 2일 1만7800원으로 무려 210% 이상 뛰었다. 3배 넘게 상승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1위 자리에 올랐다.

대표적인 사물인터넷주로 꼽히는 효성ITX는 관련 제품은 없으나 클라우드 컴퓨팅과 데이터 전송서비스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테마주로 분류된다.

사물인터넷은 안경, 시계, 냉장고 등의 사물에 통신 네트워크와 같은 센서를 부착해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말한다.

지난해 말 삼성전자가 사물인터넷 전담팀을 구성했다는 소식에 테마주로 등장했다. 이후 정부가 관련 산업 육성안을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이 기대 종목으로 떠올랐다.

효성ITX의 경우 테마주 효과와 더불어 지난해 실적 개선도 주가 상승에 한몫했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94억원으로 전년보다 66.1% 늘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가가레인과 코콤이 연초 대비 각각 180%, 160% 넘게 치솟았다.

콤텍트도 협력관계에 있는 시스코가 사물인터넷 신기술을 발표했다는 소식 등에 올 들어 47% 이상 올랐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사물인터넷은 운영하기 위한 주변환경이 성숙되기 시작했으므로 올해부터 관련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라며 "사물인터넷은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전장부품 등 어느 업종에나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우선적으로 통신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한국경제 엔저·원고 대비해야

전문가들 경고 쏟아져

'달러당 100엔 시대'로 엔저 현상이 1년째 계속되는 가운데 원화 가치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지난해 5월에 4년여 만에 처음으로 100엔을 넘어섰다. 엔화는 이후 100엔선에서 14차례에 걸쳐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해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100엔선을 웃돌고 있다.

이에 엔화 가치는 지난해 6월 94.31엔까지 올라갔다가 올 초 105.39엔까지 절하됐다.

반면 원화 가치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지난 4월 원-달러 환율은 1030.33원까지 떨어지며 4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

주요 40개국 통화와 비교해도 지난 4월 한 달간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3.05%로 가장 큰 절상폭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엔저·원고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세계 60여개 금융기관이 집계한 올해 말 엔화 전망치는 달러당 109엔이다. 이는 현재 102달러 수준인 엔-달러 환율 대비 7% 가량 절하된 수준이다.

반면 오는 4분기 원-달러 환율 전망치에 대해선 세계 주요 투자은행(IB) 등 24개 기관 중 상당수가 지난 4월에 내놨던 전망치를 추가 하향했다.

대체로 달러당 1045원으로 집계됐으며 일부 기관은 달러당 1000원~1030원선을 밑도는 전망치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원화 강세의 주요 배경으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꼽았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수출 증가와 국내 민간소비 위축으로 경상수지가 대폭 흑자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수출은 경쟁 관계인 일본의 엔저에도 불구, 지난달 사상 두 번째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다만 국내 기업의 이익 측면에서는 엔저로 인한 악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철희 동양증권 연구원은 "이미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비용절감 노력 없이는 현재의 엔저·원고를 견뎌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은 추가적인 엔저·원고를 경계하면서 내수 확대를 위한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현정기자

한국경제 좋아질까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동향 점검 간담회 를 주재한 가운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은행 해외점포 늘렸지만···

수익은 30% 가까이 하락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가 늘어나면서 총 자산은 증가했지만 수익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 해외점포의 총 자산 규모는 778억4000만달러로 전년보다 12.8% 증가했다. 이는 국내은행 총 자산의 4.4%에 해당한다.

중국(30.3%)과 홍콩(12.7%)의 자산 규모가 증가한 반면, 일본(11.9%)의 경우 엔화 약세 등으로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4억5000만 달러로 국내은행 총 당기순이익의 12.3%를 차지했다. 1년 전보다는 28.8% 줄어들었다.

저금리 기조에 따라 이자이익이 줄어든 데다 부실여신 확대로 충당금 비용이 2012년 2억달러에서 지난해 4억3000만 달러로 크게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김현정기자

황창규 KT 회장 "이제 시작이다"

각종 악재 딛고 조직개편 단행… 구체적 경영혁신 전략 만들까

Issue&View
취임 100일 맞은 황창규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지난 1월 27일 KT 수장 자리에 오른 황창규(사진) KT 회장이 취임한 지 100일을 맞았다.

황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2월초 KT ENS 사기 대출 사건 ▲3월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981만명 고객 개인정보 유출 ▲3월 13일부터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 등 악재가 잇따랐다. 결국 이석채 전 회장 시절부터 불거진 문제들을 수습하는데 100일을 소비한 황 회장은 이제야 본인의 색깔 입히기에 본격 나섰다.

◆황창규호 색깔 입히기 본격화

황 회장은 최근 특별 명예퇴직을 단행하며 8304명의 인력을 정리한데 이어 현장 중심의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를 위해 기존 236개 지사를 통합해 79개로 광역화했으며 지사 하부 조직 181개 지점을 신설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했다.

또한 유통채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KT 직영 체계에서 전문 유통관리 체계로 전환해 업무효율화를 도모했다.

특히 특별 명예퇴직으로 조직도 젊고 가벼워졌다. 노사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 대상자를 근속기간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제한하면서 직원 수는 3만2188명에서 2만3884명으로 줄었다. 전체 직원의 평균 연령도 46.3세에서 44.5세로 낮아졌다.

◆ '싱글 KT'로 '1등 KT' 만든다

황 회장은 조직을 젊고 가볍게 만드는 한편, 조직 구성원이 하나 됨을 강조했다.

지난달 17일 첫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주관한 황 회장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시너지 창출을 통해 전 계열사가 '1등 KT'를 실현해 나가자"면서 "KT와 전 계열사가 한 몸처럼 '싱글 KT'가 돼 한 방향으로 나가야만 글로벌 1등 KT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황 회장의 경영철학은 지난달 24일 전 임직원에 보낸 이메일에도 담겨 있다. 황 회장은 전 임직원에 "적당히 대충 살아남자는 타성은 과감히 깨뜨리고 독한 마음으로 제대로 일해보자"고 당부했다.

◆경영혁신, 이제 시작이다

업계는 황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KT의 구체적인 향후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 회장이 취임 후 '경영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연달아 터진 사건들로 인해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업계는 지난달 27일부터 단독 영업재개에 들어간 KT가 지금이야말로 황 회장의 진정한 리더십이 발휘돼야 할 때라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대내외적 악재로 황 회장이 취임 후 구상한 내용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이젠 1등 KT를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새로운 KT의 비전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경영 전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3밴드 LTE-A망 구축 본격화 SK텔레콤이 7일부터 서울, 광주, 부산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2.1GHz 대역 10MHz폭을 활용하는 LTE기지국 구축 확대에 착수하는 가운데 직원들이 새롭게 구축한 2.1GHz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소송 안 했으면 좋았을 것"

삼성-애플 2차 특허전쟁 무승부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특허전쟁이 무승부로 끝났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특허전쟁은 3차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배심원들은 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이에따라 삼성이 원고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1962만5000 달러(약 1232억원)로 지난 2일 발표됐던 평결 원안을 유지했다. 애플이 삼성에 배상해야 할 금액 역시 15만8400 달러(약 1억6300만원)로 변함이 없다.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배상액으로 보면 애플이 삼성의 755배다. 그러나 평결 내용을 살펴 보면 삼성전자 주장의 정당성도 상당 부분 인정됐다. 애플의 완승, 삼성전자의 완패였던 재작년과 지난해의 1차 소송 평결과는 판이한 결과다.

액수 차는 크지만 내용상 무승부라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배심원들 사이에서는 양사가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배심원 대표 토머스 던햄은 "결국 이런 것을 모두(소송)에서 소비자들이 계자일 수밖에 없다"며 "그들(애플과 삼성전자)이 합의를 하는 길을 찾았으면 한다. 이번 일(평결)이 어떤 면에서 그런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측의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평결이 확정된 후 "애플의 과도한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평결 후 절차에 있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애플의 대변인 크리스틴 유게이도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우리 아이디어를 훔치고 우리 제품을 베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업계는 양사 모두 이번 평결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대중국 수출 빨간 불

전체비중 25%선 아래로

중국 수출시장이 빠르게 닫히고 있다.

중국이 내수시장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중국에 대한 수출액은 420억5000만 달러(약 43조2900억원)로 지난해 동기보다 1.1% 늘어나는데 머물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중 수출이 8.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둔화한 수치다.

이에따라 올들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9%로 낮아졌다. 지난해 26.1%에 비해 1.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대중 수출 부진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7.4%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 7.7%는 물론 연간 성장률 목표치 7.5%에도 못 미쳤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에 빠진 중국이 내수시장 육성에 나서는 만큼 소비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병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지난해 대중 수출에서 가공무역 비중은 한국이 47.6%로 경쟁국인 일본(34.8%), 홍콩(36.1%)을 웃돌 정도로 상당수 한국 기업은 현지 내수시장 기반이 약하다"며 "가공무역 위주에서 벗어나 중국에 대한 최종재 수출을 늘려 소비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아마존 보고 있나"

구글, 쇼핑업체 인수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겨냥했다.

영국 BBC 등 외신은 구글이 시장 가격 예측 서비스 업체 '레인지스팬'을 인수했다고 보도했다.

레인지스팬은 유통업체의 판매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잘 팔리는 상품을 예측하는 것은 물론 적절한 가격, 판매 시기 등을 알려준다.

특히 이 회사를 만든 사람들이 아마존 출신이라는 점에서 구글의 이번 인수 의도를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구글은 레인지스팬을 발판으로 맞춤형 쇼핑 정보를 강화할 전망이다. 구글 특유의 정확하고 방대한 정보량을 바탕으로 소비자와 직결된 실시간 데이터까지 가세할 경우 구글이 추진 중인 e-커머스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는다.

아마존과 이베이가 사실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e-커머스 업계에 새로운 무기를 장착한 구글이 어떤 파급력을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상훈기자 zen@

해외여행 지출 최대

10세 미만 증가율 높아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1분기 해외 관광 지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관광 수지 적자가 7억2010만 달러(약 7413억원)에 달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1~3월 국민의 해외 관광 지출이 45억1360만 달러(약 4조6580억원)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기존 최고치였던 2008년 1분기 42억600만 달러보다 7.3% 많은 수치다. 지난해 1분기(41억9790만 달러)와 비교하면 7.5% 증가했다.

해외에서의 씀씀이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1인당 해외 관광 지출액은 평균 1148 달러로 지난해 1130 달러에 비해 증가했다.

이처럼 관광 지출이 늘어난 것은 설 연휴와 봄 방학에 해외에 다녀온 가족 여행객이 많았고 TV 여행 프로그램의 인기에 힘입어 중장년층의 해외 관광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분기 해외여행 인구(393만2545명) 증가율은 10세 미만이 9%로 가장 높았다. 중장년층 증가율도 50대 7.4%, 40대 6.3%로 집계돼 20대(5.3%)나 30대(5.5%)보다 상승폭이 컸다. /이국명기자

볼보 S60 D2 가격 착해지고 연비는 높아지고…

정숙함까지 뛰어나…안전도도 확보

수입차를 고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국산차보다 뛰어난 연비를 들 수 있다. 특히 수입차는 일찍 승용 디젤 엔진의 다양한 모델을 고를 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볼보가 최근 선보인 S60 D2는 경제성을 강조한 모델이다. 기존에 판매되던 2.4ℓ 215마력, 2.0ℓ 163마력 두 가지 모델과 달리 1.6ℓ 115마력 엔진을 얹은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엔진 배기량이 낮아지면서 공차중량은 2.4 모델보다 30kg 가벼운 1580kg으로 낮아졌다.

외관과 실내는 기존 모델과 큰 차이점이 없다. 다만 안전장비는 몇 가지가 빠졌다. 볼보의 자랑거리인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감지 및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을 비롯해 차선이탈 경고, 액티브 하이빔 컨트롤 등이 빠지면서 가격이 낮아졌다. 그러나 저속에서 앞차와의 추돌을 막아주는 '시티 세이프티'는 그대로 장착해 기본적인 안전도는 확보했다.

공회전 상태는 매우 정숙하다. 디젤 모델임을 감안하면 진동도 적은 편이다. 정지상태의 출발과 중저속에서의 발진은 경쾌하다. 기존 모델의 기어트로닉 변속기 대신 장착한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엔진의 반응을 효율적으로 전달한 덕분이다.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포드 포커스와 르노삼성 SM5 TCE에 장착돼 호평을 받은 독일 게트락의 제품이다.

이 변속기는 토크 컨버터를 장착한 기존 자동변속기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변속이 매끄럽다. 그러면서도 엔진 파워를 빠짐없이 전달해주는 덕에 연비 효율이 매우 뛰어나다. 표시 연비는 도심 15.3km/ℓ, 고속도로 20.2km/ℓ로, 2.4 모델보다 리터당 3km 정도 높다. 시가지를 주로 달린 이번 시승에서도 12~13km/ℓ를 꾸준히 유지했다.

그렇다면 가속성능은 어떨까. 데이터를 보면 0→100km/h 가속시간이 12.3초로 2.4 모델(7.6초)이나 2.0 모델(9.2초)보다 떨어진다. 그러나 실제 운행에서는 이 정도로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는다. 다만 중저속에서 고속으로 급가속을 시도할 때는 기존 모델보다 약간 무딘 반응을 보인다.

볼보 S60 D2는 경제성이 강조된 모델이고 그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킨다. 가격 또한 기존 2.4 모델(5410만원)이나 2.0 모델(4520만원)보다 훨씬 낮은 4180만원으로 책정돼 메리트가 충분하다. 강력한 주행성능보다는 연비와 경제성을 중시하는 이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차가 바로 S60 D2다.

/양성민기자 ferrari@metroseoul.co.kr

명품시계 한자리에! 롯데백화점이 9일부터 18일까지 본점 에비뉴엘에서 '제5회 에비뉴엘 워치&주얼리 컬렉션'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바쉐론콘스탄틴, 예거 르쿨트르, 브레게, 블랑팡 등 세계 최정상급 명품시계 브랜드 24개의 신상품들과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글로벌 리미티드 에디션 등 총 300여점을 만날 수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수도권 서남부 '함박웃음'

대어급 개발호재로 눈길

그간 '건설사의 무덤'으로 불리던 수도권 서남지역이 잇단 개발 호재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곳은 김포한강신도시, 인천 3대 경제자유구역 등의 조성으로 인구는 증가했지만 기반시설 부족과 자족기능 결여로 판교·동탄 등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왔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서남부에서 진행되던 개발 사업들이 잇달아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김포도시철도가 착공에 들어감에 따라 김포 지하철 시대의 막이 올랐고, 시흥 배곧신도시와 송도국제도시, 마곡지구 등에는 각종 기업과 기관이 들어선다.

이 중 시흥 배곧신도시의 서울대 500병상 규모의 서울대학병원 유치 작장은 최대어급 호재로 꼽힌다. 배곧신도시는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도시를 개발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라가 시흥시와 지역특성화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는 포스코건설이 아파트 분양 후 그 수익금으로 송도의 기반시설을 조성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한라는 시흥시와 함께 기업 브랜드를 알리는 문화관인 '배곧누리'를 지난달 28일 개관하고 본격 홍보에 나선 상태다.

김포한강신도시는 미분양 아파트가 빠른 속도로 줄면서 상업시설 개발도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한강물을 끌어다 김포대수로변에 조성할 수변상업지구 '라베니체'가 눈길을 끈다. 신도시의 수요 개발개념인 '수로도시'를 대표하는 독창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던 인천경제자유구역도 기업 이주 러시와 복합단지 개발로 모처럼 분위기가 좋다. 경제자유구역 중에서도 송도는 롯데와 이랜드에 이어 현대까지 대형 복합쇼핑몰 조성에 뛰어 들면서 유통대전이 펼쳐지게 됐다.

서울 마곡지구에는 지금까지 LG사이언스파크(LG그룹 11개사), 롯데, 대우조선해양, 이랜드 등을 비롯해 31개 대기업과 24개 중소기업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이화의료원과 이화여대의대도 2017년 들어올 예정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마곡지구는 향후 상주인구 4만 명, 유동인구 40만 명에 이르는 초대형 업무지구로 자리 잡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서부 지역의 경우 각종 개발이 본격화되고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면서 재평가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illegible]

삼성전자 1분기 선방은 했지만…

계열사 실적 내리막 부품 단가 하락이 원인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2.2% 늘어났다. 반면 삼성그룹의 나머지 전자 계열사들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1분기 8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삼성SDI도 39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분기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삼성전기는 1분기 영업이익이 151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흑자전환했지만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선 86.7% 감소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 8조488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보다 3.31% 감소했지만 전분기 대비 2.2% 증가하며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

통상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방업체의 실적이 호전되면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실적도 함께 개선되기 마련이지만 이번 삼성그룹의 전자 계열사 1분기 성적표는 이 같은 추세와는 멀다.

업계는 이 같은 실적에 대해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부품의 단가 하락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스마트폰과 TV 시장의 성장 둔화로 수익성 하락 압력이 커지자 부품 단가를 낮추고 운영비와 마케팅비를 줄이는 등 긴축경영에 나섰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올 1분기 실적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계열 협력사들은 지난해 2분기 정점을 찍은 뒤 일제히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2분기는 갤럭시 S5 효과로 연매 실적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둔화와 경쟁 격화로 인한 수익성 하락 압력이 갈수록 높아지며 삼성전자와 계열 협력사 간 상생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illegible]

세계 최초 LTE 기반 보안관제 서비스 LG유플러스와 ADT캡스는 제휴를 맺고 세계 최초로 사물지능통신(M2M) 플랫폼이 적용된 LTE 기반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제공

청년고용률 獨 절반 그쳐

2012년 독일의 청년고용률은 46.6%로 한국의 24.2%에 비해 2배 정도 높다. OECD 평균 39.2%에 비해서도 약 7%포인트 높았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과 독일의 고용률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원인 중 하나는 독일 청년의 50% 정도가 대학진학 대신 3년 정도 직업교육 과정을 거친 후 바로 취업하기 때문이다. 직업교육을 받은 청년 중 70% 이상이 수료 후 해당 기업에 취업하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취업을 하거나 전문대학 교육을 받는다.

독일연방직업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독일에는 약 344개의 직업군 교육이 있다. 독일 직업교육은 이론 중심의 직업학교 교육과 실무 중심의 기업 내 교육이 병행되는 이원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1주일 중 1~2일은 직업학교에서 일반적인 이론을 배우고, 3~4일은 기업에서 현장 실습교육을 받는다.

직업교육과 관련된 독일 교육시스템의 특징은 진로탐색 과정이다. 독일은 10~12세에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는 실습과정 프로그램이 있다. 학생들은 진로탐색 과정을 거쳐 종합학교, 인문계, 실업학교, 주요학교 등에 진학한다. 직업교육은 이 중에서 실업학교와 주요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주로 받지만, 일부 인문계학교 학생들도 인문계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독일연방직업교육연구소의 직업교육 수급 현황에 따르면 직업교육을 받겠다는 학생 수요가 약간 많다. 2013년에 직업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56만4294명이나, 직업교육을 받겠다는 학생은 약 5만명 많은 61만4277명이었다.

독일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교육은 남자의 경우 자동차 기술자, 산업기술자, 소매관리자, 전자기술자, 냉·난방 관리사 순이었고 여자는 소매점원, 소매관리자, 사무보조(총무·경리 등), 간호사, 치과간호사 순이었다.

독일연방직업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2~2013년 실시된 신규 직업교육 중에서 독일청년들이 받은 직업교육 분야는 상공업 60%, 수공업 26% 등이었다.

독일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상공업 신규직업교육 중 독일 청년들이 가장 많이 받은 직업교육은 유통·무역과 금속기술·산업기술·전기기술 등이었다. 상공업 전체 직업교육의 약 50% 정도다. /김학수기자 kimhk@

독일·한국 청년고용률 현황 (단위: %)

철강업계, 불황 탈출 '기지개'

1분기 영업 호조… 틈새시장 공략 힘입어

국내 철강업계가 기지개를 펴고 있다. 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세계적인 경기 부진과 중국 업체의 물량 공세에 밀려 어려움을 겪던 철강업계가 틈새시장 공략과 마케팅을 강화하며 영업실적면에서 호조를 띠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불황탈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국내 상위 철강사의 1분기 영업실적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포스코의 1분기 영업이익은 51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8% 감소됐지만 전분기보다 62%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7.0%를 기록했다.

현대제철도 233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작년 1분기보다 91.7% 급증했다. 현대제철이 지난해 고로 3기를 완공하고 현대하이스코의 자동차강판(냉연) 사업부문을 합병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영업이익률은 5.9%로 1.5%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호조세는 2분기에도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계절적으로 성수기에 접어들고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철강협회(WSA)는 올해 세계 철강수요가 작년보다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에 0.6% 감소한 미국은 올해 4.0% 늘어나고, 유럽연합(EU)도 바닥에서 벗어나 3.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면에서도 조금씩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철강제품 수출액은 1~4월 11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했다.

이런 발판으로 철강업계도 틈새시장 공략과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해외 틈새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상반기까지 아랍에미리트(UAE)의 대형 유전 생산기지 건설에 2만5000t의 고성능 후판을 공급한다. 해양구조물용 H형강 등 신기술 전략제품의 개발에 무게를 두고 있다.

포스코는 기술과 마케팅을 융합한 '솔루션 마케팅'을 내세우고 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필요한 기술과 인력도 함께 지원하는 방식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완전한 회복기에 접어든 것은 아니지만 1분기 실적을 보면 완만한 영업실적 개선이 점쳐진다"며 "지난해 큰 폭으로 감소했던 철강 수출은 올해 들어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균기자 kasiti@metroseoul.co.kr

백색가전, IT와 만나 일상에 큰도움

'A부터 Z까지' 원스톱 제품 인기몰이

백색가전 시장에 스마트 열풍이 불고 있다. 제품의 기본 기능에 충실했던 백색가전 용품이 IT와 만나 특별한 기능을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옷을 깨끗하게 빨아주던 세탁기가 옷감 보호와 관리까지 돕고, 밥만 하던 전기밥솥이 부족한 재료를 체크하고 문자도 보낸다.

삼성 버블샷3 W9000는 빨래는 기본이고, 옷감 보호부터 관리까지 책임지는 초능력 세탁기다. 세제를 미리 녹인 풍부한 버블과 2개의 강력한 워터샷이 옷감 사이사이까지 침투해 한올 한올 깨끗이 세탁할 수 있다.

또 아웃도어 의류관리를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아웃도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고어텍스 리프레쉬 코스를 통해 고어텍스 의류의 핵심 기능인 방수·방풍·투습 기능을 오랫동안 쾌적한 상태로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발수력을 회복시켜 관리해 준다.

스포츠 버블 코스를 통해 등산복·스키복·골프의류와 같은 스포츠 의류의 기능성을 보호하며, 섬세하게 세탁해 스포츠·아웃도어 의류를 효과적으로 세탁·관리할 수 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알려지며 주부의 최대 골칫거리로 떠오른 미세먼지 청소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청소기도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 청소기 모션싱크는 일체형 멀티 팬들을 적용해 좁은 구석에 쌓여 있는 실내 미세먼지까지 브러시 교체 번거로움 없이 원스톱으로 청소할 수 있다. 별도로 브러시를 교체해야 하는 기존의 청소기와 달리 핸들 조작부에 숨겨져 간편 브러시가 장착돼 언제든 꺼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7단계 청정 클린 시스템이 탑재돼 미세먼지 배출을 99.999% 차단해 준다.

밥만 하던 전기 밥솥이 특별한 기능으로 소비자들의 편의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리홈쿠첸 클래식 와이파이는 와이파이를 통해 외부에서도 밥솥 기능을 조작할 수 있다.

와이파이 스마트쿠첸 앱을 스마트 기기에 다운로드 받아 최초 1회만 밥솥과 연결하면 쿠킹·자가진단·기기설정·밥솥상태 등의 메뉴 실행이 가능하다. 쿠킹 메뉴는 가마솥밥·건강 현미 등의 밥 취사메뉴와 다양한 종류의 죽과 찜 조리법이 내장됐다. 또 예약 취사 기능을 갖췄고, 재료가 부족한 경우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장보기 요청·쇼핑 메모 등을 제공한다.

자가 진단 메뉴에는 고장이 생겼을 때 일일이 사용설명서를 찾아 볼 필요 없이 상세한 고장의 원인을 알려주는 '기기점검'과 대처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고장 신고 전 확인' 기능이 포함됐다. /김학균기자

한화솔라원, 남성우 대표 선임

한화솔라원은 신임 CEO(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에 남성우(사진) 전 삼성전자 IT솔루션 사업부장을 선임했다. 남성우 대표는 삼성전자에서 경영혁신팀장, DMC부문 컴퓨터사업부장, IT솔루션사업부장 등을 역임했다.

한화솔라원 이사회는 "남성우 대표의 글로벌 시장 개척, 경영혁신 등의 경험이 한화솔라원이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선도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성우 대표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원가경쟁력을 갖춘 고품질의 태양광 제품을 제공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한화솔라원의 위상을 격고히 하고 경영실적 개선에 다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15일 김기준 부회장은 한화솔라원 CEO 겸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한 바 있다. /김학균기자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날,
함께 하세요!
박스에 포장되어 손쉽게 들고가는 3종 팩 출시
사랑팩 ₩9,000 / 좋은팩 ₩10,900 / 함께팩 ₩12,000
YOUR FLAVOUR FRIES ONION AND CHILLI
▲좋은팩

전문취업사이트로 백수 탈출하세요

건설워커·미디어잡 등 눈길… 특화 정보에 경험담까지

"원하는 분야의 취업정보만 볼 수는 없을까."

갈수록 방대해지는 취업정보에 현기증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늘어나면서 분야별 전문취업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건설, 의료, 미디어, 유통·판매 등 전문 분야의 특화된 정보를 입맛에 맞게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심이 비슷한 구직자들과 커뮤니티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직자들에 유용한 전문 취업사이트를 소개한다.

◆16년 전통 '건설워커'(www.worker.co.kr)

국내 최초의 전문취업포털이다. 1997년 6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16년 동안 건설업 채용정보시장에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설비, 플랜트, 엔지니어링, 부동산 등 건설 분야 채용정보가 매일 900여건씩 새롭게 올라온다. 특히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동부건설, 현대엠코, 삼성에버랜드, 현대아산, 금호건설, KCC건설,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대형 건설사의 채용소식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다.

◆언론계 마당발 '미디어잡'(www.mediajob.co.kr)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작가, 광고기획, 홍보전문가 등 미디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구직자에게 유용한 사이트다. 현업 종사자의 취업 경험과 생생한 현장 정보도 풍성하다. 언론사 모의시험 서비스와 취업특강 등 다양한 부가정보도 제공한다.

◆의료 취업 최강 '메디컬잡'(www.medicaljob.co.kr)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계 채용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한다. 병·의원 임대 및 분양, 개원 입지, 개원 시 금융대출(닥터론), 병원 인테리어 등 구인구직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도 풍성하다.

◆이공계 특화 '이엔지잡'(www.engjob.co.kr)

기계, 전기전자, 정보기술(IT), 자동차, 조선, 항공 등 이공계 기술 산업 분야의 특화된 채용정보를 만날 수 있다. 직업전문학교의 IT, 기술관련 취업교육 정보 등도 제공한다.

◆관미·유통 전문 '샵마넷'(www.shopma.net)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아웃도어 매장 등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유용한 사이트다. 헤어, 메이크업, 네일아트, 피부관리(에스테틱) 등 뷰티서비스 분야 채용정보도 접할 수 있다.

◆학원강사정터 '훈장마을'(www.hunjang.com)

학원 강사 전문 취업사이트다. 학원전문가, 교육, 취업상담,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무료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학원 원장과 강사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특강 및 캠프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통큰 홍삼 파우치 드세요 6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통큰 홍삼 파우치' 4종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통큰 홍삼 파우치 4종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용, 어린이용으로 출시했다. /뉴시스

상사가 수시로 돌아다녀

직장인 62% "회사가 감시"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회사로부터 감시를 당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798명을 대상으로 회사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적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61.5%가 '있다'고 응답했다.

감시당한다고 느낄 때는 '임원, 상사가 수시로 돌아다닐 때'(53.6%,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업무 보고를 수시로 요청할 때'(36.7%), '동료가 수시로 업무를 감시할 때'(27.1%), '특정 사이트, e메일 확인 등이 차단됐을 때'(21%), '전산프로그램으로 문서 등을 감시할 때'(19.3%) 등의 순이었다.

감시당하는 부분은 '근무태도'(48.3%,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업무진행 현황'(47.3%), '자리를 비우는 횟수'(31.6%), '인터넷 쇼핑, SNS 등 업무 외 딴 짓'(29.5%) 등에 대한 거론도 많았다.

회사의 감시에 대한 대응방식으로는 29.1%가 '항상 상사·동료의 눈치를 본다'를 선택했다. '업무 중 인터넷 사용을 자제한다'(15.1%), '이직을 준비한다'(13.9%), '상사·회사 측에 불만을 표현했다'(4.7%)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국명기자

스마트폰 케이스… "무용한 것은 없다"

서승희 기자의 두잡 체험기

가죽공예 ⑥

재단 먼저 한 일은 가지고 다니던 스마트폰 케이스를 스마트폰과 분리한 후 찬찬히 살펴보기. 구조를 파악한 후 필요한 부분의 수치도 메모해 놓는다.

다음 순서는 도화지 위에 스마트폰 케이스의 뒷면에 해당하는 직사각형과 카드 수납칸, 그리고 보강재 패턴을 그리는 일이다.

미로 아르떼 강사는 "재단은 비록 중요하지 않은 작업은 없지만 패턴 완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완성작이 잘될 수가 없다"며 재차 기본을 강조했다.

가죽을 선택한 후 재단을 했다. 재단하고 보니 좌우가 바뀌었다. 원인은 패턴의 앞뒤가 뒤바뀐채 칼질을 가한 것.

결국 다시 가죽을 재단한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수강생 중 한 명은 "저 왼손잡인데, 스마트폰 교체하면 제가 쓸게요"라고 말한다. 폐기되야 할 무용한 것에 불과했던 가죽 한조각이 아말 한마디로 왼손잡이를 위한 더할 나위 없이 유용한 것으로 변모한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접었다 폈다를 반복해야 한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가죽을 반으로 접으면 고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보강재. 안정감을 주기 위해 가죽 위에 보강재를 부착한다. 이어 그 위를 안감으로 꼼꼼하게 덮는다. 깔끔한 인상을 풍기기 위해서다.

카드 수납 공간을 만들 차례다. 기존 3개였던 카드 수납공간을 4개로 늘렸다. 중요한 건 카드가 보이는 부분과 그렇지않을 부분을 계산한 후 카드를 지지할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다. 얇은 천이 필요하다. 직사각형 모양의 천을 접어 카드를 보관할 공간을 만든다.

바느질과 마무리만 남았다. 이번에는 가죽 앞뒤 모두 사선 바느질이 나오게 했다. 그리프 자국을 찾아 한땀한땀 바느질을 이어간다. 사선과 일직선 구분도 어려웠던 과거 어느 날을 떠올리며 엄숙함을 느꼈다. 느낌을 받는다. 완성작도 그 증거다. 불과 2달 전엔 명함 케이스 등 단순한 게 끝만 도전했는 데 이제는 안감에 보강재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서승희기자

제작 중인 스마트폰 케이스 /서승희기자

관절 및 인대 질환, 신경통증, 디스크 질환 등 만성 통증

진화된 신개념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 및 도수 치료로 끝!

유명 여배우 S양의 아버지 S씨는 평소 우측 팔꿈치 외측 통증(테니스 엘보우)과 우측 발목 외측 인대 만성 손상으로 여러 병원에서 인대 증식 주사, 체외충격파 치료, 스테로이드 주사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효과가 오래 가지 않고 통증이 심해져 병원으로부터 수술을 권유받았다. 수술을 고민하던 S씨는 수술이 두렵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심해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고자 S양과 같은 방송에 출연 중인 가수 K씨와 방송인 G씨의 소개로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을 방문했다.

담당 주치의인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 이승주 원장은 우측 주관절 외측 건초염 및 척골 신경염, 우측 발목 외측 인대 만성 손상 및 인대 염좌로 S씨의 상태를 진단했다. 진단 후 S씨는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치료받았던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를 맞았다. 부종 감소와 염증 치료를 위한 특수 인대 주사로도 치료를 받았다.

이후 S씨는 완벽한 재활을 위해 강남조이스병원의 핵심 치료 시설인 도수·운동·재활치료 센터에서 3차원 생역학적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레이저 초음파 치료, 인대 및 근육 강화를 위한 운동치료를 주 2회씩 2개월 받았다. 현재 S씨는 일상 생활에 불편 없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승주 원장,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 원장과 개그우먼 김현정 /강남조이스병원 제공

◆환자에 따른 맞춤형 치료 실시

이처럼 4년전부터 강남조이스병원에서 시행한 유전자 줄기세포 인대 및 신경 치료는 기존의 인대 증식과 스테로이드 주사와는 다른 치료법이다. 일반적인 인대 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오래된 인대 질환, 신경통 및 관절염까지 치료가 가능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가격에 비싸고 치료 결과가 불확실한 자가혈 줄기세포 인대 증식 주사의 단점도 극복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수많은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이 주로 찾아 이름이 알려진 강남조이스병원은 내원 환자의 질환에 따른 근본적인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환자 1명을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다.

또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잘못 자리 잡은 척추관절과 뼈를 바로 잡는 도수치료,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무중력 감압치료, 그리고 디스크나 관절 질환으로 약화된 관절, 근육 및 인대를 강화시키는 운동치료는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는다.

현재 강남조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근처의 본원 외에 여의도와 교대역, 홍대입구역 인근에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 골반 불균형, 휜 다리, 측만증 등) 전문 치료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3차원 생역학 디스크 및 관절치료센터, 연골·인대 치료 및 재생센터를 설립해 환자를 위한 합리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문의 서울대 본원 (02)875-2200·홍대점 (02)336-2200·여의도점 (02)786-2200·교대점 (02)525-2900 /황재용기자

/이화여대 의료원 제공

이화의료원, 김포공항에 '의료센터'

연중 무휴로 운영…공항 이용객 및 상주 직원 진료

이화여대 의료원(원장 이순남)이 김포국제공항에 공항 의료센터를 운영한다.

의료원은 최근 서울 강서구 공항동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종합회의실에서 '김포국제공항 공항 의료센터 운영 협정 체결식'을 열고 공사와 공항 의료센터 운영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정에 따라 올해 7월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내에 '이화여대 부설 김포국제공항 공항 의료센터'를 개소키로 했다. 의료원은 진료 인력을 파견하고 공사는 시설 및 부대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의료센터는 연중 무휴로 운영돼 공항 이용객과 공항 상주 직원은 의료원의 서비스를 항상 받을 수 있다. 또 의료진은 필요 시 항공기 사고 등 재난으로 인한 인명 구조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한편 체결식에는 이순남 이화여대 의료원 원장, 조영주 기획조정실장 등 의료원 관계자들과 정세영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남홍선 운영단장, 박종화 시설단장 등 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황재용기자

과해도 모자라도 NO '운동은 적당히'

적절한 강도와 횟수 즐기는 마음이 더 중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상식이지만 운동을 게을리하거나 과도하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운동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질환의 씨앗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운동은 시간 날 때? No!

운동은 그 어떤 보약과 명의보다 좋은 처방이다. 운동이 부족하면 체력과 근력이 약해지고 이로 인한 질환과 부상의 위험도 커진다. 특히 운동 부족이 심각한 직장인들은 장시간의 컴퓨터 사용으로 뒷목이 당기거나 어깨가 뭉친 듯한 통증이 나타나는 '근막동통증후군'을 조심해야 한다.

흔히 '담'이라고도 불리는 이 질환은 장시간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생기는 어깨와 목의 통증으로 잘못된 자세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근막동통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거나 꾸준한 운동을 해야 한다. 만일 증상이 심해진다면 병원을 찾아 통증 유발점을 제거해야 한다.

또 운동 부족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운동을 정해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스포츠 모임에 가입하거나 '일주일에 1회 정도 산행이나 산책' 등의 가벼운 운동을 즐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과가 넘친 운동 중독 안돼

하지만 운동 중독에 빠진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등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대부분의 스포츠가 어깨를 주로 사용하는 운동이라 '어깨충돌증후군' 등의 부상에 유의해야 한다.

이 질환은 어깨의 볼록한 부분인 견봉과 상완골두(팔의 위쪽 뼈)가 점점 좁아져 어깨 운동을 돕는 근육과 마찰을 일으키며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또 이를 방치하거나 무리한 운동을 계속한다면 어깨를 감싸고 있는 힘줄인 회전근개가 약해지거나 끊어지는 '회전근개파열'이 올 수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주류업계, '섞거나 낮추거나' 열풍

칵테일 시장 증가…보드카·럼·믹싱주 판매 늘어

우리나라는 주류 소비대국으로 불린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은 연간 8.9ℓ의 알코올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60㎖ 용량의 소주(20도)로 환산할 경우 무려 123.6병에 달하고, 500㎖의 캔맥주(5도)로는 356캔에 상당하는 양이다. 성인 1명이 3일에 한번 꼴로 소주 1병을 마시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주류 시장은 큰 변화가 잘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근 칵테일 시장의 인기로 보드카와 럼, 믹싱주 등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보드카·믹싱주 인기 상승

'믹싱주' 열풍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제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소비 저변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보드카, 럼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수입유통 주류사의 판매량 데이터에 따르면 보드카 시장은 2012년 17만5454상자에서 2013년에는 24만9537상자로 42.2%의 성장세를 보였다. 럼 시장도 2012년 2만4997상자에서 지난해에는 3만1822상자로 27.3%의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2012년 말 13개에 불과했던 보드카 브랜드는 지난해 말 16개로 늘어났다. 공식적으로는 3개 브랜드에 불과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브랜드까지 따지면 국내 보드카 시장은 현재 약 20여개의 브랜드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류 업계 관계자들은 귀띔했다.

보드카 시장은 디아지오의 스미노프와 페르노리카의 앱솔루트가 본격적인 대결에 나서는 가운데 프리미엄 보드카 시장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내 보드카 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앱솔루트가 67.3%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스미노프가 20.8%로 뒤를 따르고 있다.

국내 업체들도 이에 뒤질세라 대세로 떠오른 믹싱주 시장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국내 최초 믹싱주를 표방하며 지난해 3월 출시된 믹키스는 이런 붐을 타며 출시 10개월만에 60만병을 판매했다. 올해 1월에는 스트레스나 노안성 치매에 효과 있는 항산화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햇잎 찻가루를 담아 '햇잎 담은 믹싱주 믹키스' 제품을 업그레이드 출시했다.

◆저도수 소주업계도 뛰어들어

소주시장에서의 저도수 바람은 이미 꽤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다. 1998년 진로에서 참이슬로 브랜드명을 바꾸며 기존 25도에서 23도로 낮췄던 것이 시초다. 그 후 2004년에는 아예 저도수 시장을 타깃으로 21도인 '참이슬 후레쉬'를 선보였다.

본격적인 저도수 경쟁에 돌입한 것은 2006년 두산주류(현 롯데주류)가 20도대 '처음처럼'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참이슬도 도수를 낮췄고 급기야 처음처럼 보다 1도 낮춘 18도의 '진로 제이'를 출시했다. 이후 잠시 주춤하던 저도수 경쟁은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이 기존 도수에서 1도 낮춘 18도 제품을 선보이며 다시 불 붙고 있다. 1960년 30도 소주가 출시된 후 40여년이 흐른 지금 절반 가량인 18도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대표 소주인 참이슬과 처음처럼이 도수 낮추기 경쟁을 벌이는 동안 지역 소주들도 저도수 추세에 동참했다. 무학은 2006년말 16도대 소주인 '좋은데이'를 출시해 경남지역을 기준으로 점유율 70%에 육박하는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소주시장의 저도수 경쟁 심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를 중요 원인으로 꼽았다. 과거처럼 '부어라 마셔라'에서 벗어나 가볍게 즐기는 술자리를 선호하며 자연스럽게 저도수 소주를 더욱 찾고 있는 것이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피크닉 음식…간편하고 맛있게

굽네 순살,밥 버거 등 제격

날씨가 따뜻해지자 공원에서 가족, 친구 모임이 많아지고 있다. 상춘객들이 피크닉가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

'굽네치킨'의 '굽네 순살'은 오븐에 구워 기름기가 없고 담백하며 뼈를 발라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먹기 편한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굽네 순살은 국내산 100%의 원료육을 사용했고 전부 닭다리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퍽퍽하지 않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굽네치킨의 포장박스를 모두 펼치면 간이 피크닉 테이블로 변해 야외에서 먹고 뒷정리하기에도 간편하다.

'도미노피자'는 봄 기운을 가득 담은 '더블 크러스트 블루밍 피자'를 출시했다. 이제 품은 메르게즈 볼과 모카치아 큐브, 엣지 토핑이 입체적으로 피어올라 풍부한 맛을 선사한다. 얇고 바삭한 더블크러스트 도우 시어에 버터 달걀노른자 바닐라 향을 넣은 홀렌다이즈 무스를 가득 담아 도미노피자만의 창조적인 노하우를 선보여 봄에 어울리는 피자로 주목 받고 있다.

밥버거 전문점 '봉스'의 '고기 고추장 밥버거'는 편리하고 실용적인 한 끼 식사다. '고기 고추장 밥버거'는 고기와 고추장을 볶아 만들어 한국적인 맛을 자랑하는 메뉴로 간편하게 포장해 먹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이 업체는 햄버거의 조리 방식에 빵 대신 밥을 이용하고 한식 토핑 재료를 더했기 때문에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

굽네치킨 홍경호 대표는 "봄을 맞아 나들이에 나선 분들에게 굽네 순살은 고객들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며 "굽네치킨과 함께 즐거운 피크닉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주류도 전용잔에 마셔야 '제맛'

아그와·호가든·버니니 등 분위기 연출 톡톡

술이라면 무조건 소주컵, 맥주컵으로 통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각 브랜드마다 최상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용잔 출시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전용잔은 단순히 브랜드 로고만 인쇄된 잔은 아니다. 술의 특징을 가장 섬세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가운데 '오뚜기 잔', '모래시계 잔'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독특한 아그와(사진)의 전용잔은 아그와 밤(Agwa Bomb)을 만들 때 그 진가가 발휘된다. 이 잔의 볼록한 아랫부분에 에너지 드링크를 채운 후 아그와를 천천히 따라주면 된다. 이 때 아그와 전용잔 허리선 부분 살짝 위까지 에너지 드링크를 담아야 확실히 층이 나뉘어 제대로 된 아그와 밤을 즐길 수 있다고 한다.

벨기에 맥주인 호가든은 육각 전용잔에 두 번 따라 마시는 독특한 음용법이 특색이다. 다른 잔에 비해 두꺼운 유리로 만들어져 손의 체온 전달을 방지해 오랜 시간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잔의 굴곡은 풍부한 거품을 형성시키며 넓은 입구는 마시는 순간 향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준다. 마시는 방법은 전용잔에 3분의 2정도 호가든을 따른 후 효모가 남아 있는 3분의 1을 호가든 로고의 위치만큼 거품을 내 마신다.

맥주병처럼 생긴 병에 간혹 맥주로 오해 받는 버니니는 캐주얼 스파클링와인이다. 알코올 도수 5%의 가벼움과 함께 적당한 농축미를 지녀 청량감과 깨끗한 맛이 특징이다. 손에 쥐기 좋은 275㎖의 사이즈 때문에 잔 없이 들고 마시기도 하지만 전용잔에 마시면 색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다. /[illegible]기자

新맥주 출시 잇따라…간편 안주식 인기

안주와 식사를 동시에

최근 맥주 신제품 출시가 한창이다. 국내 맥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각각 메인대주인 '에일스톤'과 하이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뉴 하이트'를 출시한데 이어, 롯데도 '클라우드'를 발표하며 국내 맥주 시장에 뛰어들었다.

특히 가정용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종류가 늘면서 집에서 가볍게 맥주를 즐기는 소비 트렌드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사를 겸해 맥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간편식 안주 제품이 주목 받고 있다.

치킨류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 받는 맥주 안주다. 대상 청정원 '쿠킨 마늘찜닭'과 '쿠킨 안동식찜닭'은 닭을 이용한 프리미엄 요리 안주다.

이워춤 '리얼 치킨' 2종은 통닭다리살을 갈지 않고 그대로 튀긴 제품이다. 이 제품은 닭다리살을 간장과 마늘양념으로 숙성해 소스 없이도 달콤하고 담백한 맛을 냈고, '케이준 리얼 핫치킨'은 케이준 스파이스 양념으로 매콤한 맛을 더했다.

오뚜기도 '매콤한 스위트칠리치킨', '화끈한 닭강정' 등 전자레인지에 데워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닭고기 간편식을 선보이고 있다.

마니커에서 최근 출시한 '닭가슴살 구이육포'는 국내산 닭고기만 사용해 만들었다.

롯데햄 '키스틱 씹을수록 맛있는 반건조 소시지'는 참나무로 훈연 건조해 수분함량을 55% 이하로 낮춘 살라미 타입의 소시지다.

/[illegible]기자

센스 뽐내는 '같은 듯 다른 옷'

디자인 동일하면 컬러 바꿔 캐릭터 프린트로 귀여움 연출

SPA 브랜드 유니클로는 키즈·베이비 라인과 성인용 라인을 폭넓게 전개하며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티셔츠(UT)와 폴로셔츠 등 대표 제품들은 남성용·여성용·아동용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디자인으로 구성돼 아이와 함께 착용 가능한 패밀리룩 아이템으로 좋다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

올 해 봄·여름 UT 컬렉션은 일본 스트리트패션의 아이콘 니고(Nigo)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해 티셔츠 및 봉제선을 없앤 심루 렛으로 두께감과 디자인 등의 디테일에 변화를 줬다.

특히 이번 시즌 총 35개의 콜라보레이션 라인 중 디즈니 프로젝트 라인과 피너츠 스누피 라인은 남성용·여성용과 아동용이 같이 출시돼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가족 분위기를 낼 수 있는 패밀리 룩 연출에 좋은 아이템이다.

봄철 환절기 날씨로 밤에는 아직 쌀쌀한 기운이 돌기 때문에 야외 활동 시 레이어드 제품을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스웨트 풀집 파카는 부드러운 소재가 특징인 아우터로 환절기 티셔츠 위에 입기 편한 옷이다.

남성용과 여성용은 심플하고 베이식한 디자인이 특징이고 아동용은 퓨마출스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 제품으로 귀여운 느낌을 더했나. 똑같은 제품은 아니지만 패밀리 룩으로 연출했을 때 오히려 감각적인 스타일을 뽐낼 수 있고 특히 여행지에서 유용할 것이라고 업체 측은 전했다.

이와 함께 2014년 봄·여름 시즌 신상품인 폴로셔츠 파이큐 바스티안 콜라보레이션 라인은 빈티지하고 세련된 감성을 살린 제품으로 남성용과 아동용이 출시돼 아빠와 아이가 함께 착용하면 스타일리시한 패밀리룩을 연출할 수 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사랑은 볼펜으로 쓰세요~"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아이파크백화점이 카네이션 볼펜 만들기 행사를 연다. 1일부터 15일까지 아이파크백화점 리빙관 뷰티디소화백토의 공간에서는 꽃잎을 이용해 카네이션 모양으로 장식한 볼펜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참가비는 재료비 포함 1만원.

/아이파크백화점 제공

"햇볕에 강한 남자 되자"

여름철 피부관리, 자외선 차단·모공 관리 중요

여름철 피부 관리 노하우가 필요한 시점이다. 높아진 기온과 강한 자외선 때문에 피부도 스트레스를 받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남성들은 잦은 야외 활동으로 자외선에 노출될 때가 많고 여성에 비해 피지 분비가 활발해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기 쉽다. 이에 따라 외모를 가꾸는 남성, 즉 그루밍족을 위한 여름 스킨케어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남성도 자외선 차단 중요

자외선은 멜라닌 색소로 피부 얼룩과 기미·주근깨 등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피부 손상의 주범이다. 운동을 즐기는 남성이라면 자외선이 강한 야외에서는 SPF 30~50 사이나 PA +++ 이상의 자외선 차단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파장이 긴 자외선 A는 건물 유리를 투과하기 때문에 사무실·학교 등 실내 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날씨가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남성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 랩 시리즈의 파워프로텍터 SPF 50 PA +++ (사진 오른쪽)는 가벼운 로션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다. 자외선 차단은 물론 번들거림 없이 신속하게 피부에 흡수되어 피부를 촉촉하게 가꾸어 준다.

◆여름철 피지·모공 관리가 핵심

여름철 각종 피부 트러블이 많은 이유는 모공 속 피지와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피지는 기온이 높아질수록 더욱 왕성하게 분비된다. 하지만 이때 모공 속에 피지와 노폐물·미세먼지 등이 원활히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된다. 특히 남성은 여성에 비해 피지의 분비량이 많기 때문에 모공 관리가 중요하다.

필립스의 '비자퓨어 맨'(왼쪽)은 1분 정도의 짧은 클렌징만으로 모공 확장·블랙헤드·각질·피지 등의 해결을 돕는 전동 클렌저다.

◆피부 자극엔 즉각적 관리 필요

야외 활동이 많은 남성들의 피부는 더워진 날씨에 더욱 지치기 쉽다. 기초 대사량이 높은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쉽게 체온이 올라간다.

또 남성 호르몬이 땀 분비를 촉진시켜 남성 피부는 더욱 쉽게 열에 지치게 된다. 이럴 때는 쿨링 제품을 사용해 자극 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것이 좋다.

로레알파리 맨 엑스퍼트의 '하이드라 에너제틱 쿨링 스틱'은 34도의 고온 다습한 기후 속에서 실험을 완료한 제품으로 즉각적인 쿨링 효과를 줘 바르는 즉시 피부 온도가 1도씩 감소하는 제품이다.

/정혜진기자 hjgiant@metroseoul.co.kr

숲 속의 작은 집…내게 맞는 텐트는?

레트로 감성 캠핑부터 컴팩트·영화까지 즐긴다

본격적인 캠핑시즌이 돌아왔다. 올 시즌에는 천편일률적인 오토캠핑 스타일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개성과 감성을 반영하거나 캠핑과 함께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텐트가 주목 받고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대표 박창근)는 올 시즌 레트로한 복고풍 디자인과 컬러감으로 '감성캠핑'을 즐길 수 있는 구스토 텐트 앤 타프 세트를 선보였다.

이 텐트 세트는 국내에 캠핑 붐이 일었던 1990년대 초반의 복고 트렌드를 반영하고 클래식한 컬러 배색을 통해 감성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3~4인용 돔형 텐트와 비·햇빛을 막아주는 타프가 한 세트로 구성됐으며 기존 제품과는 달리 백색을 적용해 텐트와 타프 구성만으로도 색다른 분위기의 캠핑 공간 연출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자외선 차단과 발수 처리된 내수압 3000mm의 원단을 사용해 비나 햇빛을 차단해주며 텐트 천장의 통풍구와 좌우 창문이 있어 쾌적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콜맨은 밝은 색감이 돋보이는 경량 텐트 원즈 라이트 돔 W210을 최근 출시했다.

이 텐트는 터쿠아즈(터키석) 컬러가 돋보이는 1~2인용의 가벼운 텐트다. 최근 트렌드인 솔로 캠핑·컴팩트 캠핑·감성 캠핑 등에 적합한 텐트라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는 최근 텐트 속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오토 캠핑용 텐트 카티즈 시네마를 출시했다.

이 텐트는 거실과 침실이 분리된 투룸형 텐트로 내부 장착이 가능한 프로젝터용 스크린과 빔 프로젝터를 기본 구성으로 한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못 참겠어, 제대하고 만나고 싶은데 휴가 때마다 널 고시는 길."

지난 2012년 김정환은 엠넷 '슈퍼스타K 4'에 출연해 좋아하는 여자를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군인들의 마음을 솔직한 가사로 담아낸 '2어어스 어파트'로 뭇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당시 군인 참가자 최초로 생방송 본선 무대까지 진출했던 그는 전역 후 에디 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다. 그의 데뷔 앨범 '너 사용법'은 아이돌 일색인 최근 대한민국 가요계에 젊은 싱어송라이터의 탄생을 예고했다.

◆ 김정환과 에디 킴 사이

김정환이 아닌 에디 킴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그는 "에디일 때가 더 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슈퍼스타K 4' 속 경직돼 있는 군인 김정환의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들에게 장난기 넘치고 즐거운 모습도 있는 에디 킴으로 각인되고 싶은 마음에서 영어 이름을 선택했다고 한다. 김정환이 진지한 자아라면 에디킴은 자유분방한 뮤지션의 자아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저 사실 말도 많고 예능 욕심도 있어요. 진짜 사나이 가면 정말 잘 할 수 있는데 아직 전역한지 1년도 채 안 돼서(웃음) 얼마전 '슈퍼스타K' 동기 정준영의 친구로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우결' 출연은 여성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기자의 말에 그는 "그럼 우선 노래만 열심히 하겠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인터뷰 내내 재치 넘치는 말들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어간 그는 음악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눈을 반짝이며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 음악만큼은 '모범생'

어린 시절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처음 음악에 취한 그는 중학생이 된 후 대중음악을 자신의 길로 정하고 본격적인 음악 공부를 위해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유학생활 초반 그는 빌보드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꿈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자증 화려한 데뷔보다 자신만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버클리 음대 재학 도중 군에 입대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졸업 후 군복무를 하기도 하는데 전 먼저 하자는 생각으로 한국에 돌아왔죠. 그러다 '슈퍼스타K 4'에 참가하게 됐어요. 음악을 공부한 지 10년 가까이 되니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맞는지 궁금했어요. 실력을 점검해 보고 싶어서 참가한 거죠."

실력 점검을 위해 그는 예선전에서 자작곡 '2어어스 어파트'를 선보였고 대중과 심사위원은 그의 매력에 사로잡혔다. 클래식부터 어쿠스틱 기타까지 모두 섭렵한 그의 실력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군인이라는 신분적 한계로 방송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던 그는 6위라는 아쉬운 성적을 끝으로 다시 군부대로 돌아갔다. 그리고 군인 김정환에서 가수 에디 킴이 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 일상이 곧 음악

전역 후 윤종신이 이끄는 미스틱89에 합류한 에디킴은 신인으로선 이례적으로 데뷔 앨범 전체 수록곡을 직접 만들었다.

"데뷔 앨범을 모두 자작곡으로 채운다는 건 복 받은 일이죠. 윤종신 선배가 제가 가진 색깔과 작곡법을 존중해준 덕분이에요."

일상에서 음악적 영감을 얻는다는 그는 "노래를 만들 땐 100% 내 이야기로 채우진 않는다. '2어어스 어파트'는 개인적 경험과 생각보단 군인들이 가진 다 똑같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며 "또 친구들하고 함께 술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걸 즐기는데 그런 것들이 곡 쓸 때 영감을 주기도 한다. 거기에 더해 내 이야기는 한 20~30% 정도만 쓴다"고 설명했다.

수록곡 중 그의 존재를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린 '2어어스 어파트'를 비롯해 '잇츠 오버', '밀당의 고수' 등 이미 2년 전에 완성된 곡부터 이번 앨범을 위해 만들어진 '슬로 댄스', '너 사용법', '소녀'에 까지 여섯 곡 모두 에디 킴만의 색깔이 묻어난다.

/김지민 기자 디자인/최송이

이름 바꾸고 데뷔앨범 낸 젊은 싱어송라이터

"너 사용법" 자작곡으로 채워 노래에 기타 연주까지 만능

EDDY KIM

영화계 활기 되찾았다

기대작 흥행몰이… 배우들 홍보 일정도 재개

침체됐던 영화계가 5월에 들어서면서 활기를 완전히 되찾았다.

지난달 30일 나란히 개봉한 '역린'과 '표적'이 개봉 6일 만에 각각 200만 명과 100만 명을 돌파했다. 6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역린'은 5일까지 214만1271명, '표적'은 112만6520명의 누적 관객 수를 기록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할리우드 대작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의 누적 관객 수도 328만4964명을 추가해 300만 명을 넘었다.

5일 일일 박스오피스 1~3위는 '역린'(44만4075명)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37만8810명) '표적'(27만3492명) 순이었다.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주말과 이어진 황금연휴에 기대작들이 쏟아져 관객들의 발길을 다시 극장가로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세월호 사고로 불가피하게 전면 취소됐던 영화 홍보도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개봉 전 언론 시사회를 하지 못한 '역린'과 '표적'의 시사회가 열린다. '역린'은 9일 13일 16일 롯데시네마에서 이재규 감독이 관객과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표적'은 14일 서울 부산·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5대 도시에서 예스24와 함께 스페셜 상영회를 개최한다.

언론 배급 시사회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홍보 활동을 자제해 멈췄던 현빈(사진)과 조정석 등 '역린'의 주연배우들과 유준상 등 '표적'의 주연배우들도 다음주부터 언론 인터뷰를 시작해 홍행에 힘을 보탠다.

앞서 제작보고회를 취소했던 '인간중독'은 이달 15일로 개봉이 임박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펼친다.

주연배우인 송승헌과 온주완이 2일 JTBC '마녀사냥'에 출연한 데 이어 7일 MBC '정오의 희망곡-라디오스타'에도 나와 영화를 알린다. 송승헌은 언론 인터뷰에도 나서는 등 분주한 일정을 소화한다.

7일 언론 배급시사회 직후 열리는 기자간담회에는 송승헌 온주완을 비롯해 임지연 조여정 등 전 배우들이 참석한다. 9일에는 방송인 신동엽이 사회를 맡고 주연배우들과 김대우 감독이 참석하는 토크 쇼케이스가 열린다.

이 밖에 제67회 칸국제영화제 감독주간 초청작인 '끝까지 간다'는 9일 언론·배급 시사회 후 김성훈 감독과 이선균 조진웅 등이 참석하는 기자간담회를 연다. 다음달 5일 개봉할 '우는 남자'는 이달 8일 주연배우 장동건 김민희와 이정범 감독이 참석하는 제작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하은정기자 ssk0427@metroseoul.co.kr

고혹적인 문근영 배우 문근영이 고혹적인 자태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문근영은 최근 한 패션 잡지 5월호 화보에서 어깨가 드러나는 주홍색의 원피스를 입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매력을 선보였다. 현장 관계자는 "문근영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리고 30대 여배우로서는 가질 수 없는 그만의 아우라가 있다"며 "이제 피기 시작한 꽃과 같다.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문근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은정기자

▶ 역시 여자는 연애하면 더 예뻐지는군요.

'섹시 아이콘'의 음성이 궁금해?

스칼렛 요한슨 '그녀'서 목소리 연기 호평

'그녀'의 스칼렛 요한슨.

22일 개봉할 스파이크 존스 감독의 영화 '그녀'가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 출연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녀'는 아내와 별거 중인 편지 대필 작가 테오도르(호아킨 피닉스)가 인공지능 운영체제인 사만다(스칼렛 요한슨)를 만나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다.

올해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받은 수작이다. 스칼렛 요한슨이 최근 제8회 로마국제영화제에서 목소리 연기만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유례없는 기록을 세워 더욱 주목받고 있다.

영화 '아이언 맨' '어벤져스'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져' 등에 출연한 할리우드 대표 섹시 아이콘 스칼렛 요한슨은 '그녀'에서 보고 듣고 읽고 사랑하며 성장하는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운영체제 사만다를 맡았다. 몸짓 손짓, 표정이 아닌 목소리만으로 여러 감정들을 표현했다.

해외 평단은 "스칼렛 요한슨은 목소리만으로 최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뉴욕타임스)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만으로도 가치 있는 영화"(롤링 스톤)라고 평했다.

영화에는 스칼렛 요한슨을 비롯해 호아킨 피닉스 에이미 아담스 루니마라 등이 출연한다. /하은정기자

창작가무 '바람의 나라_무휼' 개막

고영빈·지오, 왕·왕자 호흡

김진의 인기 만화 '바람의 나라'를 원작으로 한 서울예술단의 창작 가무극 '바람의 나라_무휼'이 11~20일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공연된다.

2006년 초연된 이 작품은 고구려 건국 초기 왕가를 배경으로 정치적인 이념이 다른 고구려 3대 대무신왕 무휼과 그의 아들 호동이 대립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2006년 한국뮤지컬대상 안무상과 기술상, 2007년 더뮤지컬어워즈에서 안무상과 조명음향상을 수상했다.

2009년 이후 5년 만에 재공연되는 이번 공연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내 정상의 제작진으로 구성됐다. '서편제' '잃어버린 얼굴 1895' '광화문연가'의 이지나가 연출을 맡았다. 안무는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 안애순이, 작곡은 드라마 '하얀거탑' '허준' 대장금 등의 음악을 맡은 이시우가, 음악감독은 김문정이 맡았다.

뮤지컬배우 고영빈과 엠블랙의 지오(사진)가 각각 무휼과 호동을 연기한다. '광화문연가'에서 연적으로 만났던 두 사람은 이번에는 부자(父子)로 만난다. 고영빈은 지난 공연에 이어 3회 연속 무휼을 맡게 됐다.

이 밖에 서울예술단 단원 박영수가 영원한 삶을 거부하고 무휼을 따르는 고구려의 장수 괴유 역에 낙점됐다. /하은정기자

독신 예능, 결국 '함께 살기'

룸메이트' '나 혼자 산다' 감정공유로 고독 해소

1인 가구를 조명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SBS '룸메이트'와 MBC '나 혼자 산다'는 혼자 사는 연예인들의 일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각각 집을 공유하거나 특정 모임을 만들어 놓고 있어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걸 역설하고 있다.

지난 4월 첫 방송된 SBS '일요일이 좋다-룸메이트'는 독신 남녀가 함께 집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담은 관찰 예능이다.

출연진은 개별 인터뷰에서 혼자 사는 사람의 외로움을 털어놓으며 출연 배경을 밝혔다. 함께 살게 된 11명의 독신 남녀들이 겪게 될 갈등과 감정 공유가 시청자에게 신선하게 다가갈 것으로 분석된다.

개성 있는 연예인들이 룸메이트가 됐다는 점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4살 나이차인 신성우와 찬열, 정반대 외모인 이동욱과 조세호, 기가 센 언니들 이소라와 박봄 사이에 있는 막내 송가연의 조화가 눈에 띈다.

사랑이 싹틀 수 있다. 서강준을 둘러싼 나나-홍수현의 경쟁과 이를 바라보는 박민우와의 사각 관계는 '룸메이트'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나 혼자 산다'는 독신 남자 연예인 7명의 생활을 보여준다. 맏형 김용건부터 김민준, 전현무, 김광규, 데프콘, 육중완 그리고 프랑스 독신남 파비앙까지 서로 다른 성향을 지닌 이들은 무지개 모임으로 한데 뭉쳐 각자의 일상을 공유한다.

'나 혼자 산다'는 연예인들의 반전 생활로 시청자의 공감을 얻고 있다. 화려하게 살 것 같은 무지개 회원들의 실제 모습은 일반 시청자와 다르지 않고 지극히 평범하다. 특히 싱글남으로서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출연자부터 외로움에 밖으로 나가려고 만하는 연예인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고독을 해소하려는 일곱 남자의 일상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전효진기자

SBS '룸메이트' /SBS 제공

MBC '나 혼자 산다' /MBC 제공

SBS 새 수목극 '너희들은 포위됐다'의 이승기·차승원 /SBS 제공

SBS 월화극 '닥터 이방인'의 박해진·이종석 /SBS 제공

한 작품 세 장르 '복합물' 뜬다

'이방인' '너포위'… "주 재료에 양념 역할로 재미 선사"

복합 장르 드라마의 연이은 등장이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SBS 월화극 '닥터 이방인'은 메디컬 첩보 멜로극이며, SBS 새 수목극 '너희들은 포위됐다'는 청춘 성장 로맨스 수사물이다. 비슷한 장르가 반복되던 국내 콘텐츠에 대한 염증이 새로운 분야를 갈망하는 욕구와 함께 빚어낸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난 5일 첫 방송된 '닥터 이방인'은 메디컬 첩보 멜로가 다 들어간 구성으로 복합 장르의 매력을 보여줬다.

박훈(이종석)이 아버지 박철(김상중)을 따라 북한에서 의학 지식을 쌓고 천재 의사의 기질을 발휘하는 메디컬 장르의 짜릿함부터 남북 대결 상황과 탈북 과정이 보여 준 첩보물의 박진감, 죽음 위기에 처한 연인을 구하려는 한 남자의 순애보가 선사하는 멜로 장르의 애틋함이 적절히 어우러졌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새로운 걸 원하는 욕구가 있지만 낯선 장르의 경우 시청률이 낮다"며 "복합 장르는 친숙한 장르의 조화으로 이 둘 사이를 상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복합 장르물이 각광받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도 다양한 영상물을 많이 취하다 보니 장르별 이해도가 높아졌다. 복합 장르를 보며 이질감보다는 재미를 느끼는 여유"라고 덧붙였다.

이달 7일 방송될 '너희들은 포위됐다'는 강남경찰서 꽃외모 신입 경찰 4인방인 F4 이승기·고아라·안재현·박정민이 펼치는 청춘 성장 로맨스 수사물이다.

극중 차승원은 최고의 수사관 서판석을 맡아 F4의 엄한 조언자가 되며 성지루는 차승원과 함께 F4의 조력자이자 갈등을 중재하는 '강력 3팀의 엄마' 이용도로 활약할 예정이다.

정 평론가는 복합 장르물의 성공 요인에 대해 "확실한 노선이 있어야 한다. 첩보-수사물과 멜로는 상반되는 재미를 주기 때문에 섞이기 어렵다. 어떤 주제 하나를 잡고 나머지 장르는 양념 역할을 해야 복합 장르만의 재미를 선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지오디 9년 만에 재결합

15주년 기념 프로젝트 8일 신곡·7월 콘서트

그룹 지오디가 9년 만의 재결합을 공식 선언했다.

지오디는 데뷔 15주년을 맞는 8일 첫 번째 싱글을 발표하고 재결성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컴백을 준비하던 시기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 신곡 수익금 전액은 희생자를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15주년 프로젝트는 이번 싱글 발표를 시작으로 7월 정규앨범 출시, 7월 12~13일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의 단독 콘서트로 이어진다.

이번 활동은 12년 만에 원년 멤버 5명이 모두 함께 활동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1999년 1집 타이틀곡 '어머님께'를 히트 시키며 데뷔한 지오디는 2002년 5집에서부터 윤계상을 제외한 박준형·데니안·손호영·김태우 등 4인조로 활동해왔고 2006년 활동을 중단했다.

'어머님께' '거짓말' '촛불 하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길' '하늘색 풍선' 등 많은 히트곡을 내며 국민 그룹으로 사랑받았던 지오디는 15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이 곡들은 물론 신곡까지 선사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suno@

멈춰선 음악시장에 대세 컴백

일정 중단 엑소 오늘 앨범 공개… 가요계 정상화 이끌듯

앨범 출시를 앞두고 전면 계획을 중단한 그룹 엑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엑소는 7일 한국과 중국의 각종 음악 사이트에 새 미니앨범 '중독'의 전곡 음원을 공개한다. 음원과 함께 타이틀곡 '중독'의 뮤직비디오도 유튜브 SM타운 채널, 페이스북 SM타운 페이지 등에 공식 오픈돼 엑소의 새로운 변신과 퍼포먼스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엑소의 공식 홈페이지에 앨범 발매 소식을 전하며 "세월호 참사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발매 일정을 잠정 연기한 앨범을 7일 발매하게 됐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힘과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엑소는 지난달 15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컴백쇼를 연 데 이어 21일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세월호 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지자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앨범 발매와 관련된 모든 일정을 중단했다.

'중독'은 힙합과 R&B를 기반으로 한 댄스 곡으로, 치명적이고 강렬한 사랑에 중독된 남자의 이야기를 사실적이고 감각적으로 묘사한 가사가 인상적이다. 컴백쇼에서 최초로 공개해 뜨거운 호응을 얻은 만큼 '늑대와 미녀' '으르렁' 12월의 기적'에 이어 또 한번 흥행을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세월호 참사로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던 음악 시장은 최근 정상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엑소의 컴백과 함께 다른 가수들의 음반 발표와 공연 개최도 속속 이어질 전망이다. /유순호기자

엑소의 수호 시우민 타오 디오 크리스 레이 루한 카이 백현 찬열 세훈 첸(왼쪽부터)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지금 소중한 사람을 품어야할 때"

'덕혜옹주' '은주' 저자 권비영
상처 치유할 수 있는 소통 강조

"주위를 돌아보거나 소중한 사람을 품어야 할 때다."

'덕혜옹주' 이후 5년 만에 '은주'를 출간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권비영(사진) 작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에게 뒤쳐지지 않기 위해 경쟁만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받은 상처를 말이다.

"삶의 과정에서 겉으로는 웃고 행복해 하지만 누구나 상처와 아픔이 있다. 그래서 이런 상처를 치유해야 하고 상처를 이겨내면서 서로가 인생을 진주처럼 만들어야 한다. 물론 치유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서 시작된다."

말을 이어가던 그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소통의 부재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상처와 아픔이 커졌다는 것이다. 또 마음을 먼저 열고 다가가야 하는 단순하지만 어려운 소통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 주위의 가족은 대화가 없이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잃어버렸다. 은주처럼 먼저 용기를 내서 다가가야 할 첫 번째 대상이 바로 가족"이라고 말했다.

속도에 의해 가려진 가족들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말이다. 또 그는 우리가 안고 있는 현재를 직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와 약간 다를 뿐 그들도 우리와 같은 가족이다. 다름을 인정하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있으면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된다."

다름이 아닌 틀림으로 단정해서 여유가 없어지고 소통이 불가능해졌다는 것. 그래서 같은 가족이지만 오히려 상처를 안고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 내용을 책에 담고 싶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숨을 잠시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언급했다.

"우리 사회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놓치는 것이 많다. 주위를 잠시만 둘러볼 수 있는 여유만 있으면 걱정과 고민, 의심과 상처 대신 소통과 치유,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황재용기자 hsnu38@metroseoul.co.kr

사진 한 컷

강하고 넓은 할머니의 뒷모습

할머니의 조그만 구부정한 뒷모습을 보면 경외감이 든다. 순탄치 않은 세월을 잘 지고 견뎌온 어깨는 그 무엇보다 강하고 넓게 느껴진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며 살다보면 나름의 '같이'가 저절로 생긴다던 할머니. 지금껏 살아온 인생사를 책 한권으로 줄이기도 어렵지만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늙은이가 주저리 주저리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되물었다. 보여지는 말보다 나름의 '같이'에 신경 써야 할 요즘이다. - '단색은 파도가 자아 재잡저이'(홍석리·김도희/알마) 중 -

/김숙정기자

아빠가 된다는 것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

화제의 책

아빠라서 다행이다
최 랜필드 외 창/청림나무

최근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아이들과 보다 더 시간을 오래 보내고 즐거운 추억을 쌓고 감정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대부분의 아빠들이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서툴기 짝이 없다. 대체 아빠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 책은 아빠가 됨으로써 느낄 수 있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을 담고 있다. 아이가 선물한 작고 보잘것없는 장난감 비행기, 비행 중에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 신경을 하던 중 겪은 아이와의 다툼 등 아빠라면 누구나 한번쯤 겪게 되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책은 저마다 다른 45가지의 에피소드들을 통해 아빠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이와 함께하며 사랑과 미래의 희망을 키워가고 자신 속에 숨겨진 더 나은 나를 찾아 성장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책은 그저 마음먹은 대로 사랑을 전하면 된다고 서툰 아빠들을 따뜻하게 격려한다.

더불어 책은 자녀들에게도 아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쭈구려 넥타이를 선물했을 때 화를 내던 아빠, 내가 준 상처에 조개처럼 입을 다물고 말았던 아빠가 이 책 속에 들어 있다. 또 서툰 아빠만큼이나 서툴렀던 내가 책 속에 있다. 아빠를 이해한다는 것은 아빠가 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일 테지만 책을 통해 어렴풋이 더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장혜선기자 shjang@...

새로 나온 책

아세아

딸아, 너를 위해 꿀을 사렴
알렉산드라 스토다드/문학테라피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저자는 일상과 마음에도 아름다운 인테리어가 필요하다며 삶을 아름답고 현명하게 가꿀 수 있는 일상의 철학을 전하고 있다. 저자 자신도 그러했듯 세상의 모든 딸이었던, 누군가의 딸인, 딸을 가진 이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건넨다.

우리 아들과 딸이 사랑에 눈뜨던 날
한발듯/문인

사랑과 결혼을 꿈꾸는 젊은 연인들에게 아버지가 들려주는 소소한 인생 이야기다. 더욱이 저자는 사랑, 이별, 인생, 죽음 등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의미와 가치를 세계의 명시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오늘도 편지를 씁니다
권혁설/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극단의 이기주의로 주변에 대한 무관심이 일상화된 오늘날, 손편지가 진심한 소통의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자신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은 소원·꿈 등을 소통을 주제로 한 40여 편의 진심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다.

과학·수학

심슨 가족에 숨겨진 수학의 비밀
사이먼 싱/윤출판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 속에 응용수학 박사, 컴퓨터 과학 석사, 예일대 교수 등의 경력을 가진 심슨 가족 작가진이 은밀하게 숨겨놓은 수학의 비밀을 흥미롭게 풀어낸다. 저자는 심슨 가족의 인물들과 에피소드들을 통해 수학 개념부터 역사, 수학적 유머까지 중고생도 이해하기 쉽게 버무려냈다.

교육

여자아이 자존감
로빈 실버만/북로그컴퍼니

왜곡된 사회적 가치관에 의해 외모와 몸매에 관한 스트레스와 강박증을 안고 살아가는 소녀들이 많다. 저자는 부모, 학교, 친구 등 소녀들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딸을 가진 부모에게 아이들을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게 키우기 위해 필요한 방법들을 조언한다.

인문

십대의 두뇌는 희망이다
대니얼 J. 시겔/처음북스

10대 사춘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시기가 아닌 인생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희망의 시간이다. 이에 저자는 10대의 두뇌가 가진 놀라운 힘을 통해 인생의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또 갈등을 겪고 있는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조언도 들을 수 있다.

청춘의 인생 철학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외/팩컴북스

고전에서 우리는 시대를 관통하고 공간을 뛰어넘는 진리를 발견하며 삶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얻는다. 고전을 읽는 수고는 크지만 그 대가를 온전히 거두어들이는 것은 다름 아닌 읽는 사람이다. 이 책은 철학사에서 비중이 큰 5명의 철학자가 인생에 대한 고찰을 담은 고전을 모아 엮었다.

여행

스님 계십니까
권중서/지식노마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산을 좋아하는 민족도 드물다. 거의 모든 산에는 크든 작든 사찰이 있다. 산 곳곳에 있는 사찰과 암자 25곳을 소개하는 이 책은 사찰에 대한 관점을 바꿔보길 권한다. 언제 누가 창건됐고 국보나 보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기보다는 진정한 사찰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도와준다.

건강

알츠하이머병 가족에게 다가가기
조엔 코니그 코스테/부키

2013년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57만6000여 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셈이다. 하지만 치매 및 알츠하이머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 친구들을 위한 사회적 이해와 제도적 뒷받침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이 직접 겪은 환자 및 가족 사례를 보여 주며 치매 환자와 안전하고 편안하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기성용 '브라질 모드' 돌입

조기귀국 무릎 치료 · "월드컵 중요 역할 할 것"

선덜랜드 기성용이 2014 브라질월드컵 출전을 준비하기 위해 6일 오후 인천공항에 귀국했다 /뉴시스

축구 대표팀의 중원 사령관 기성용이 조기 귀국하며 2014 브라질 월드컵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에서 뛰고 있는 기성용은 오른쪽 무릎 힌대 염증으로 최근 4경기에 결장했고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했다

이날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기성용은 현재 몸 상태에 대해 "오래 전부터 통증을 느꼈는데 참고 뛰다가 악화됐다"며 "3주간 현지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현재 러닝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성용은 이날 곧바로 서울케이에스병원으로 이동해 축구대표팀 주치의인 송준섭 박사에게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송 박사는 "우선 기성용의 무릎을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살펴보고 현지 의료진의 MRI 사진과 비교해 부상이 어느 정도 호전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월드컵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성용 역시 리그를 채 마치지 않고 조기귀국해 부상 치료를 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혀 월드컵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한국에서 좋은 치료를 받으면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빨리 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월드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 월드컵 전까지는 충분히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덜랜드는 주전인 기성용의 결장에도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강팀과 대결에서 3연승을 달리며 리그 강등권(18~20위) 탈출을 눈앞에 두게 됐다 기성용은 "구단과 나, 서로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잘 판단하고 함의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프로 선수 자격 부족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소속팀 리그 일정이 마무리되기 전 한국에 돌아온 선수는 박주영(왓퍼드) 박주호(마인츠) 박종우(광저우 부리)에 이어 기성용이 네 번째다

대표팀은 8일 23명의 월드컵 최종 명단을 발표하고 12일부터 소집 훈련에 들어간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DL' 류현진 오늘 훈련 재개

빠른 회복 내주초 등판 가능

부상자 명단(DL)에 오른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이 7일 다시 글러브를 낀다

어깨 근육 염증으로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류현진은 팀 주치의 엘라트라치 박사로부터 "더는 정밀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은 6일 워싱턴D.C에서 워싱턴 내셔널스와 원정 3연전에 앞서 "처음부터 큰 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류현진이 어깨에 통증도 느끼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았으며 내일부터 투구 훈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콜로라도 로키스와 경기에 선발 등판한 뒤 왼쪽 어깨 근육 염증으로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류현진은 동부 원정에 나선 팀에서 나와 로스앤젤레스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류현진은 4월 28일부터 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소급적용돼 이르면 13일부터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설 수 있다 류현진은 한국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에서 뛰던 2011년에도 왼쪽 어깨 근처 견갑골이 벌어져 어깨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졌다 /유순호기자

여왕의 마지막 인사

'피겨 퀸' 김연아가 4~6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스마트에어컨 올댓스케이트 2014'에서 화려한 공연 무대를 선사하고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전적 (6일)

■잠실

한화	100	201	000	4
LG	010	000	031	5

[illegible]

■목동

NC	020	130	000	6
넥센	010	000	020	3

[illegible]

■문학

삼성	210	100	130	8
SK	020	002	000	4

[illegible]

■사직

두산	305	000	200	10
롯데	655	200	10X	19

[illegible]

AFC 챔피언스리그 전적 (6일)

전북	1	[illegible]	포항

[illegible]

이대호 3일 만에 안타

이대호(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세 경기 만에 안타를 때렸다

이대호는 6일 일본 후쿠오카 야후오크돔에서 열린 니혼햄 파이터스와의 홈경기에서 4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쳤다 시즌 타율은 0.270에서 0.269로 약간 떨어졌다

이대호는 1회 첫 타석에서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고 6회에는 유격수 땅볼로 잡혔다 0-1로 뒤진 9회 1사 1루에서 타석에 나선 이대호는 유격수 글러브를 스치는 중전 안타를 치며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대호를 대주자 하카시 겐지와 교체한 소프트뱅크는 1사 1·3루 기회에서 후속 가세가와 유이치의 1타점 적시타와 상대 마무리 마스이 히로토시의 끝내기 폭투를 묶어 2-1로 역전승을 거뒀다 /유순호기자

'추추트레인' 고속질주 진행형

2안타 추신수 타율·출루율 1위 고수

'추추트레인'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사진)가 리그 타율·출루율 1위다운 고감도 타격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추신수는 6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인터리그에서 3타수 2안타 볼넷 1개, 1득점, 1도루를 기록했다 시즌 타율을 0.366으로 더욱 끌어올리며 아메리칸리그 1위를 지켰다 출루율 0.491로 부동의 리그 1위를 달리며 메이저리그 대표 공격수의 명성을 확인했다

1번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한 추신수는 첫 타석에서 2루 땅볼로 물러났지만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볼넷으로 나가며 출루 본능을 드러냈다 6회초 선두타자로 다시 타석에 나선 추신수는 총알같은 2루타를 친 뒤 콜로라도 중견수 드루 스터브스가 공을 더듬는 사이 3루까지 내달렸다 이어 후속 땅볼 때 홈을 밟아 텍사스의 첫 득점을 올렸다

추신수는 팀이 빈타에 허덕이며 1-7로 끌려가던 8회초 네 번째 타석에서도 좌전안타를 쳤다 그러나 팀 타선은 살아나지 않고 텍사스는 2-8로 패했다

한편 이날 경기는 내셔널리그 타율 1위인 콜로라도의 트로이 툴로위츠키와의 맞대결로도 화제를 모았다 툴로위츠키는 2점 홈런 2개를 날리며 타율을 0.408까지 끌어올렸다 /유순호기자

구세계 생산국의 대표 품종

조민호의 와인스토리

숫자상으로 전세계에서 자라는 포도 품종은 수천 가지다. 이 중 와인을 만드는 포도는 비티스 비니페라 등 몇 품종으로 한정된다. 먼저 구세계 와인 생산국의 상징적인 포도 품종을 알아보자.

와인의 메카 프랑스는 국제 품종의 집합체다. 카베르네 소비뇽, 피노 누아, 시라 등 국제 품종의 원조가 워낙 많아 대표 품종이 뭐라고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

반면 와인 세계에서 프랑스와 쌍벽을 이루는 이탈리아만 해도 사정은 달라진다. 이탈리아는 양조에 쓰이는 포도 품종만도 무려 400가지에 달하지만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포도는 확실히 있다. 바로 산지오베제와 네비올로다. 산지오베제는 우리의 막걸리와 같은 존재인 토스카나 '키안티' 와인을 빚는 데 쓰인다. 또한 이탈리아 내에는 산지오베제와 같으면서 다른 이름을 가진 품종(클론이라 한다)이 다수 존재한다.

네비올로는 껍질 두께와 풍부한 탄닌이 전세계 포도 중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 조건만 맞으면 100년 이상 숙성시켜도 왕성한 탄닌을 자랑하는 강렬한 품종이다. 네비올로는 이탈리아의 최고 와인인 피에몬테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를 만들어 냈다.

스페인의 독자 품종은 템프라니요다. 리오하 지역에서 주로 재배된다. 과거에는 프랑스의 보르도에서 처럼 블렌딩을 주로 했으나 최근에는 템프라니요 만으로 만든 와인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베리아 반도의 또다른 나라 포르투갈은 주정강화 '포트 와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포르투갈도 토착 품종이 워낙 많지만 포트와인의 주 재료인 토우리가 나씨오날 품종이 그래도 이 나라를 상징하는 포도가 아닐까 싶다.

화이트 와인의 왕국 독일은 누가 뭐래도 리슬링 품종이다. 라인강을 따라 재배되는 이 포도 품종으로 상큼하고 가벼운 와인에서 당도 높은 늦수확 와인, 아이스 와인까지 만들어 낸다.

그밖에 화이트 와인에서 자기 입지를 확실히 구축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그뤼너 벨트리너, 세계 3대 귀부(Noble Rot)와인에 꼽히는 토카이 와인 생산국 헝가리의 푸르민트 품종도 꼽힐만하다. /echo@metroseoul.co.kr

날씨

5/7 水 일출시각 05:31 일몰시각 19:2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131.co.kr

서울 · 청주 · 대전 · 전주 · 광주 · 제주 · 강릉 · 울릉도 · 대구 · 포항 · 울산 · 부산

따뜻해지면서 산체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체활동의 증가로 피로가 쌓이면 고혈압과 부정맥 등으로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www.gnk.co.kr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saju006.com

공직 적성인데 합격 쉽지않아 토건·광산·임업쪽과 인연있어

배두산산 남자 80년 4월 26일 11시

Q 저는 제 성미가 어떤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사업보다는 직장생활이다 공무원으로 지내는 것이 속이 편할듯 합니다. 불의를 못보고 정치인이나 거만한 그리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을 보면 화가 치밉니다. 이런 제가 공직 생활이 제격이라고 보는데 합격이 잘 안 되는데 포기해야 하나요?

A 귀하는 태산속에 진흙 과 같은 형상으로 원망과 근심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예를들어 괴강(보스기질)에 과격함으로 때로는 노기를 드러내고 조조해 하거나 불안감을 지고 있으니 고통과 시련을 거친후 당당한 위세로 등등해질 수 있는 명입니다. 재물의 창고를 지니고 있으며 기이한 행복의 운도 있으므로 필시 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을 획득하여 자신의 계발과 함께 생활의 무기를 단단히 하면 안정된 삶을 구가 할 수 있습니다. 토건업이나 광산 임업과 인연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관운이 코너변상으로 날아갈수록 나아가 들수록 절묘사(絶墓死)지로 가고 있어서 희망이 없는데 굳이 고집한다면 군경검 계통으로 나가도록 하십시오.

회사 어려워 창업 생각중인데 직장 충실 6년후 검토하세요

sunmoon 72년 11월 17일 오후 3시 30분

Q 회사생활 14년에 4번 이직하였습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요새 회사 경영이 힘들어 보이고, 연봉이 많이 저 혼만 아니라 동료들도 힘들어 합니다. 대출을 1억 정도 받아 개인장사 (프랜차이즈 커피숍 등)를 하면 실패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을까요?

A 삼기성상격(세가지 오행이 모여 있음)으로 건전자충(乙乙乙重)하는 가운데 도량이 넓은 편인 비견(다른 동근의 오행)이 강하고 강인(羊刃)이다. 자신의 주체성이 강한사람입니다. 올해 갑오(甲午)년이 되어 식상(내가 생해주는 오행)운으로 무엇인가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동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앞으로 운은 사업을 하여 돈을 볼 수 있는 재운이 좋은데 다만 시기가 지금은 사업이나 장사를 할 때가 아닙니다. 세운(해마다 들어오는 운)에서 재물운이 쇠병사(衰病死) 쇠퇴하여 묶이고 죽음과 같은 흉(凶)지로 가고 있으니 앞으로 6~7년 이후 운세가 흥성되니 사업보다는 직장생활을 해가면서 근검절약으로 빚을 줄이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5		2	
	3	8			4			
5		6	9	3		8	7	
1	7	9						
						9	1	8
	8	3		4	9	7		1
			7			4	8	
	1		2				3	

							3	8
	2		5					
6	4		2		3			
2		4	7				5	
7			1		9			2
	9				5	4		7
			3		8		1	6
					2		4	
1	7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한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제공)

신점[神占] 운세 5월 7일 음 4월 9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지식뽐내기가 어렵다는 것 실감한다. **60년생** 쓴 소리가 약이니 귀담아 들어라. **72년생** 기다리던 희소식은 듣는다. **84년생** 힘은 드니 상사의 격려에 힘이 쑥~

소: **49년생** 돈 때문에 스타일 구기지 말라. **61년생** 서운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 **73년생** 질투하는 사람이 많으니 언행 조심~ **85년생** 중도를 지키어 손해 없다.

호랑이: **50년생** 은혜를 갚을 수 있어 좋겠다. **62년생** 내일의 태큐은 쓰니 공정적으로 생각하라. **74년생** 장사는 시간이 갈수록 매출이 오른다. **86년생** 젊은이의 기개를 보여주라.

토끼: **51년생** 미련은 가지 없이 날려버려라. **63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75년생** 공감을 표시할 땐 확실히 하라. **87년생**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는다.

용: **52년생** 추고는 묵직한 한마디가 좋다. **64년생** 큰일을 통한 징크스는 털어라. **76년생** 귀인을 만나서 숨은 재능 발견한다. **88년생** 인연과 정겨운 사랑싸움~

뱀: **53년생** 한턱은 부담되지 않게 써라. **65년생** 잔소리 하는 배우자가 얄밉다. **77년생** 자영업자는 의외의 대박기대 해라. **89년생** 손톱 같 가시 같은 사람은 떠난다.

말: **42년생** 생각도 못한 공돈이 생긴다. **54년생** 가족의 단합한 시선이 부담. **66년생** 직장인은 착실한 성과로 주역이 된다. **78년생** 누구다 성급함을 겪으며 자라는 법~

양: **43년생** 좋은 일 뒤에 어려움 따른다. **55년생** 상대방 이른 곳은 꼬집지 말라. **67년생** 어려운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한다. **79년생** 손해 볼까봐 약속을 어기지 말라.

원숭이: **44년생** 남의 일로 종일 분주하다. **56년생** 자녀의 발랄한 웃음에 흐뭇~ **68년생** 돈 주고도 못 살 희열을 맛본다. **80년생** 진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법~

닭: **45년생** 술로 인한 탈 조심~ **57년생** 배우자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할 수밖에 없다. **69년생** 내 것이 아니면 눈길도 주지 말라. **81년생** 차곡차곡 쌓아온 믿음은 빛을 본다.

개: **46년생** 멋진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 좋겠다. **58년생** 짜증이 나도 참아라. **70년생** 성하기 아무이 날작하니 거둬어 둘다. **82년생** 친구 있으니 돈은 빌려주지 말라.

돼지: **47년생** 모양보다 기본에 충실 하라. **59년생** 심심풀 정도로 편안하다. **71년생** 운기가 열렸으니 뜻을 애운것 펼쳐라. **83년생** 너그러운 상사 덕에 위기 모면한다.